외대학보

TH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WEEKLY

〈제783호〉
2001년 4월 10일(화)

창간 1955년 4월 11일 (주간 변병설 조규남 김장일) 주간 변병설 편집인 박수웅 인쇄인 송운주 신문사 961-4151, 962-7128(F) 학생기자실 (서울)961-4152, 4466 FAX 961-4183 (용인)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왕산리 산 89

마라톤 협상

총 23시간의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협상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회부 도보

"과 학생회비는 왜 내야 하는 거죠?"
새내기들은 궁금해 합니다.
또, 그것이 쌓이면 불만이 됩니다.
과학생회장들의 걱정도 깊어지죠.
학생회비와 관련된 문제들과 해결책을 모색해 봤습니다.

학술부 도보

대학신문기자들이 조선일보를 향해 지성의 칼을 뽑았습니다.

사회부

흥익대에서 지난 5일(목)부터 7일(토)까지
9기 한총련 대의원대회가 열렸습니다.
9기 한총련 의장 선거를 비롯해
총노선 토론 등이 진행됐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미화부 도보

이번 학기부터 운영되는 성문제 상담소.
우리 한 번 상담 받으러 가 볼까요?

사회부 도보

역사는 때문한 과거의 이야기일까?
여기 교과서에 빈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즐거운 역사 만들기 대회에 참여해
백두상을 받은 서울 남성초등학교
6학년 2반 친구들.
그들이 만나고 온 역사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볼까요?

용인 배움터, 학교측과 23시간 마라톤 협상 벌여

지난 4일(수) 용인배움터 등록금 인상, 학자요구안 관철 등을 이유로 진행된 무기한 수업거부로 인한 총장과의 협상이 소위원회 구성, 한 학기 두 번 학생과의 간담회 개최 등의 여러 가지 합의점을 남기고 마무리됐다.

용인배움터는 지난 29일(월) 총투표가 성사됨에 따라 3.4일(수) 양일간 부분적으로 수업거부가 진행됐다.

총학생회측은 총장과의 협상을 제의했으며, 학교측은 폐쇄된 행정부서의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이에 총학생회측은 지난 3일(화) 각 행정부서의 집기를 원상복구했다.

10시부터 총장과의 협상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학교측의 요구로 부총장과 1차 협상이 11시부터 먼저 시작됐으나 "근본적인 대안이나 중요 쟁점은 총장님과 직접 논의하라"며 "등록금 문제는 서울배움터처럼 복지기금으로 일부를 돌리는 것으로 하겠다"고 강조해 협상이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다.

협상 진행 중 교양관 앞마당에서는 15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새내기발언 △노래배우기 △동아리 공연 △영상물 시청 등으로 집회가 진행됐다.

이에 앞서 지난 3일(화) 평소와 같이 강의에 임할 것 등의 교수 입장이 담긴 '강의실 강제 폐쇄에 대한 전체 교수 성명서'가 발표됐다.

이와 관련 부총장과의 1차 협상 이후에는 이영환 경상대 학과장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다.

이영환 학장은 "학교측에 선결과제 안건으로 예산안 공개, 교통문제, 기숙사 문제를 제안하겠다"며 무기한 수업거부 진행에 대해 "학교를 발전시키려는 학생들의 의지는 알고 있지만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투표 기간을 하루 연장한 것에 대해 절차의 불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총학생회측은 "학생회 회칙에 이틀간 투표를 했을 시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으면 하루를 더 연장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후 5시쯤 학교측은 총장, 부총장, 학생처장, 기획조정처장, 교무처장이 참석했고, 학생측에서는 각 단대 학생회장들이 전원 참석하여 협상이 시작되었다.

교양관 로비에서는 150여명의 학생들이 FBS 방송국의 협조로 스크린을 통해 생중계로 협상을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과회장, 새내기, 언론사 기자 등 10여명의 참관인이 배석하기로 했으나, 학교측은 "이것은 진정한 협상의 자리가 아니다"며 "어차피 생중계를 할 것이고 참관인이 있으면 분위기가 위압적이다"며 참관인의 철수를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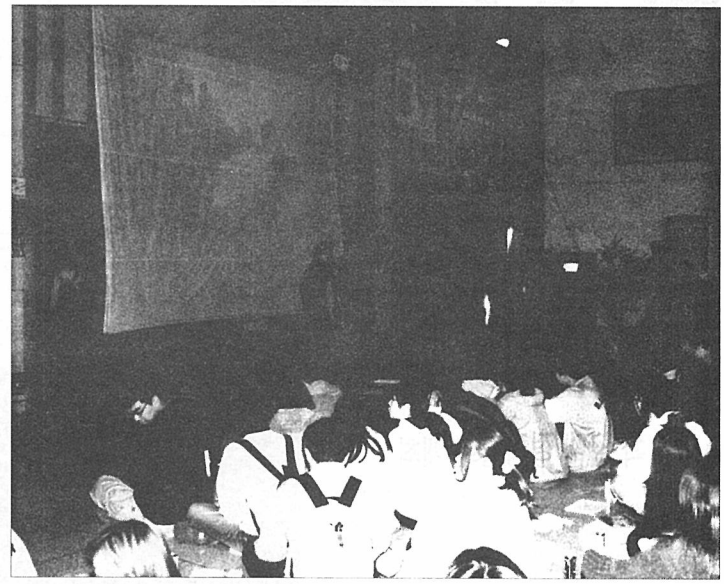
이와 관련 부총학생회장 황중환(인문·철학 94)군은 "오히려 생중계를 하는 마당에 참관인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 없지 않느냐"며 "참관인 문제와 생중계는 사전에 협의가 있었던 것이었다"고 말했다.

지켜보고 있던 학생들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의사가 다수였지만 "이 협상에 있어 양보는 이번이 마지막이다"며 학생들과의 논의 끝에 참관인을 철수시키고 각 언론사 기자들만이 참관할 수 있었다.

23시간의 긴 협상은 지난 16일(금) 보고대회로 마무리 되었다.

이와 관련 총학생회측은 "아직 세부적으로 논의 할 사항이 많이 남아있다"며 "부총장님과 합의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수경기자 seoulwater63@hanmail.net



등록금 협상 실황 중계 지난 4일(수) 용인배움터 '무기한 수업 거부'로 인한 총학과 총장의 협상이 진행됐다. 각 단대학생회장들이 총장실에서 23시간의 마라톤 협상을 벌이는 동안 150여명의 학생들은 로비에서 스크린을 통해 협상과정을 지켜보았다.

사진부

조선일보 반대 기자회견 열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주최 '조선일보 반대와 언론개혁을 위한 기자회견'이 지난 6일(금)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철학까페에서 열렸다.

현재 전국 126개 대학신문사가 가입, 활동하고 있는 전대기련은 지난 해 11월에도 조선일보 사옥 앞에서 조선일보 반대 집회를 여는 등 언론개혁운동에 높은 관심을 보여 왔다.

수구적인 색채의 논조로 비판을 받아온 '조선일보'에 자성을 촉구하고 기성언론에 대한 문제점을 되짚어보고자 열린 이번 기자회견에는 고윤정 전대기련 의장(부산대 사회복지 4)을 비롯, 한양대, 서울 신학대, 한신대, 목포대 등 9개 신문사 편집장들이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고윤정 전대기련 의장은 "앞으로 조선일보 평생 구독거부 운동, 대시민 선전전 등의 활동을 통해 활발한 반대운동을 펼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또한 사업계획으로 △ 취재원을 대상으로 한 조선일보 평생 구독거부 서명운동 △ 4.5월중 대시민 학생 대상 거리 선전전, 지면을 통한 선전 등을 제택, 발표했다.

한편, 당초 기자회견은 전국대학방송국연합(전방련), 전국대학영자지기자연합(전영기련) 등 타 대학언론단체와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일정문제로 전대기련만이 단독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회부

12일 전학대회 개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가 오는 12일(금) 사회과학관 206호 강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학생회비 책정 △총학생회 집행국장 인준 △총학생회의 사업에 관한 예산안 및 사업보고 △총학생회 사업 결산보고 △학생복지위원회, 외대발전추진위원회 등 특별기구 인준 및 예산책정 △감사위원회 구성 등이 진행된다. 이에 앞서 지난 9일(월) 열린 확대운영위원회에서는 전학대회 안건상정과 함께 그동안 진행됐던 교육투쟁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한다. 이와 관련 총학생회는 교육투쟁의 성과를 대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아침 선전전과 스티커 설문을 실시하며, 소음문제와 관련한 퀴터제, 3진 아웃제 등의 도서관문화운동도 진행한다.

대학부

최승환(부산대 총학생회장)군 한총련 의장 당선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학생운동 대중화의 새로운 알대도약을 위한 논의의 장인 9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대의원대회가 지난 5일(목)부터 7일(토)까지 4000여명의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홍익대학교에서 열렸다. 대의원대회는 한총련 소속 175개 대학의 학생대표들이 모여 한총련 1년 정책과 사업을 토론하고 논의하는 자리이다. 첫날인 5일(목) 시민학생한마당과 전야제 행사를 진행하고, 대의원대회 이틀째인 6일(금), 한총련 의장선거가 홍익대 체육관에서 4시간 가량 진행됐다.

한총련 임시의장인 이용헌 후보(전남대 총학생회장)와 최승환 후보(부산대 총학생회장)가 출마한 이번 경선은 한국 학생운동에 대한 향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사전부터 뜨거운 화두이기도 했다. 이날 선거는 8백 70명의 총인원 중 6백 17명의 재적 대의원이 투표한 결과 최승환 후보가 338표를, 이용헌 후보 274표를 각각 득표함으로써(무효 5표) 최승환 후보가 제9기 한총련 의장으로 당선됐다. 최승환 한총련 의장 당선자는 "학생들 속에서 거듭되는 실천과 혁신으로 다시 학생운동의 신화를 불러일으키겠다"며 당선소감을 밝혔다. 마지막날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4월 대회'와 미국의 NMD,TMD 반대 집회를 끝으로 막을 내린 이번 한총련 대의원대회는 예년에 비해 많은 인원이 참여, 운동론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벌어진 자리였다.

전대기련공기단

알림

앙 배움터 온라인 수강신청 취소
9일(월)~13일(금)
(재수강 신청 과목은 해당 교학과)

외대학보

바로잡습니다

지난 782호 1면 '민중대회' 기사 중 '민노당'을 '민주노동당'으로 바로잡습니다

외대학보

빈칸

'얼음 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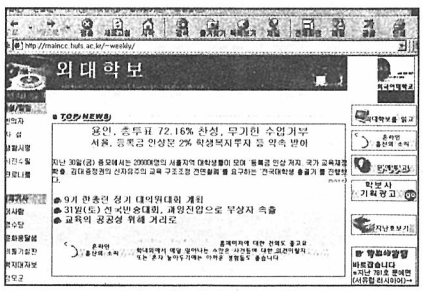
▲'얼음땡'이라는 놀이가 있다. 규칙은 간단하다. 술래를 정하고, 술래가 상대방을 쫓는 게임이다. 술래잡기와 유사하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술래가 아닌 사람들은 '얼음'을 외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는 것이다. 술래는 '얼음'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닌 상대방과 게임을 하는 것이다. 술래는 '얼음'을 풀고 잡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지난 23일 검찰은 독극물질인 포름알데히드 470병(230ℓ)를 한강에 방류명령을 한 미8군 용산기지 영안실 부소장 맥퍼랜드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 동안 미군과 여론의 눈치를 오가며 판결을 5개월간 미룬 검찰은 '약식'이었다. 참만 시민의 생명에 위협을 준 행위치고는 죄의 값이 가볍지 않느냐는 것이 시민사회단체의 판단이다. 비단 미군의 환경파괴가 요 몇해 사이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1993년 국립환경연구원이 미군 철수 지역내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환경기준치의 두배 이상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군이 버린 군 유류에 함유된 납 등 중금속에 의해 오염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실제 지난 1992년 '유에스 월드 리포트'지에 보도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필리핀 등 10개의 미군 기지에서 미국의 환경법을 무시하고 독성 및 폐기물들이 버려지고 있으며, 해외에 있는 대부분의 미군기지에서는 주둔국의 토양과 지하수를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내용이 보고됐다.

▲이렇듯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한 57년 동안 자행한 환경파괴는 안전하면서도 지속가능했다. 이를 가능케한 것은 불평등 조약에 기인한다. 한미행정협정(SOFA) 4조에 '비합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 원상태로 회복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돼 있으며, 6조에는 '합중국 군대는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전기, 통신, 하수, 폐기물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환경오염에 대한 완벽한 책임회피의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으며, 뒷처리를 한국정부가 떠맡도록 하는 등 불평등을 규정하고 있다. 올해 개정된 개정안도 규정변경이 미미한 수준이어서 없어 앞으로도 미군의 환경파괴는 지속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게임은 다 늦은 밤이 되어도 계속된다. 해빙과 동결을 반복하는 상대방의 느릿한 몸놀림에 술래는 지쳤다. 온 몸에 흙이 묻고, 입록이 자도 술래는 자신에게 불리한 규칙안에서 패자이다. 아직도 '얼음' 하는 소리만이 들려온다. '얼음'. '얼음'…

편집장 soma-j@hanmail.net



http://maincc.hufs.ac.kr/~weekly

신문만을 읽을 수 있었던
외대학보 홈페이지가
이제 여러 독자들과 대화하려 합니다.

온라인 상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만나요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

용인배움터 등록금 협상

물꼬 튼 대화 속, 입장 차이 확인

등록금 · 재단투자 확대 논의 결렬, 40대 요구안 부분적 합의

이상 기자

지난 4일(수) 오전 10시부터 5일(목) 9시경까지 총 23시간에 걸쳐 진행된 학교측과의 협상 결과, 40대 요구안에 대해서는 따로 소위원회를 건설해 논의할 것으로 합의했으나, 핵심사항인 재단의 투자확대와 등록금 인상률에 대한 부분은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이날 총장은 오전 10시부터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으나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해 왔으며, 학교측은 부총장과의 1차 협상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동양학대학생회장 박종호(아프리카어 96)군은 "지금 이러한 총장님의 행동은 협상결과를 떠나 상호간의 신뢰를 완전히 깨버리는 것이다"며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의 자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부총장과의 1차 협상이 끝난 후 늦은 5시 총장이 도착했으며, 곧 이어진 협상에서 학교측은 재단의 투자는 더 이상 없을 것임을 전했다.

또한 등록금 인상률은 △실질적으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점 △재단이사회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 △서울배움터와 대학원도 환불해 줘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복지 기금이나 장학금으로는 줄 수 있어도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생중계를 통해 협상 과정을 지켜본 김진수(정보산업공 · 전자공학 95)군은 "학교측은 학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고 전했으며, 장선주(서유럽 · 이태리어 00)양은 "총장님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진지한 모습에 결과는 장담할 수 없지만 조금 희망이 생긴다"고 말했다.

한편 무기한 수업거부에 대해서는 학교측과 학생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교수들이 수업을 진행함으로서 총투표시 수업거부에 찬성한 한 학생들도 어쩔 수 없이 듣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상대의 한 교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수업권은 포기할 수 없다'며 폐쇄된 강의실의 창문을 넘어 들어가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과정에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지 듣지 말아야 하는지 헷갈린다"며 "앞으로의 불이익에 대해선 총학생회측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는 학생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이런 학생들의 의견에 따라 지난 6일(금) 열린 중앙운영위원회에서는 앞으로의 방향과 수업거부를 한 학생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에 관하여 논의했다.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오는 10일(화) 비상확대운영위원회를 통해 논의한다.

이수경 기자
seoulwater63@hanmail.net

학생측 요구안 협상결과

요구안	협상정도
재단의 투자확대	재단의 투자는 더 이상 없다(결렬)
등록금 인상률	환불은 절대 안 된다(결렬)
교통(스쿨버스 증차,노선버스 확충 등)	학교, 학생이 참여하는 소위원회 구성, 특별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추가 구입 할 의지 있음
외대발전안 및 학사구조조정 개편안	소위원회 구성(4월 11일 개최) 4월 중 공청회
IMF장학금 확충 및 분할납부 확대 실시	장학금-의견 더 수렴하여 확충하는 방향 분할 납부-3회 분할 실시
등록금 책정위원회	5월부터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4월 대평의 통해 논의
교수임용제도에서의 학생 참여 보장	공개강의 제도화의 방안을 적극 검토
중앙도서관 건립 약속 이행	올해 내로 설계 공모. 내년 착공
제 2기숙사 건설	교통문제 소위원회에서 논의
전임 교수제 확대	1학기 때 11명, 2학기 때 최소 20명 증원 계획
도서관 열람실 확대개방	도서관측과 실무협의 진행
전공(고급)강의실 확대	올 여름 10개 더 신설
대학평위원회 의결기구화	4월 중 대학평위원회(대평위) 소집하여 논의
학회동아리 연습동 건설	건설 필요성 인정, 지금은 불가능 후복관 지하 40평 규모 공간 개조해 사용
한 가정에서 2인이상 외대 재학시 장학금 지급	1학기내 장학위원회 소집해 결정하겠음
교수임용제도에서 학생참여 보장	제도화 방안 적극검토

서 울

각 단대 정기총회 개최

서양어대

오는 11일(수) 노천극장에서 열리는 서양어대 정기총회는 '학생들을 학교의 주인으로'라는 기치로 진행된다. 각 과원어 노래 · 춤패 공연으로 꾸며지는 1부 해오름제에 이어 2부 본행사에서는 지난 4일(수) 열린 △서양어대학생대표자회의 보고 △과회장 소개 △사업보고 등을 진행한다.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맞아 '답방환영문화제'도 준비해 이북 노래, 율동 등을 배워보는 시간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서양어대 학생회장 김재연(영어 99)양은, "서양어대는 그동안 학생들의 참여가 적어 정기총회가 성사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많이 참여해서 서대인의 1년을 그려보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회대

지난 4일(수) 열린 사회대 정기총회는 △율동패 공연 △사업보고 △과회장, 집행부 소개 △새내기 발언 △계열제 철폐 찬반 총투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현재 계열제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정 · 행계열을 과제로 바꿀 것을 묻는 계열제 찬반 투표에는 146명이 참여, 119표로 찬성이 압도적이었다.

이에 사회대 집행부 박정원(행정 99)군은 "이번 투표를 계기로 과학생회에 대한 고민이 공론화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소감을 밝혔다.

본관신축관련 공간조정 회의

본격적인 본관신축공사가 시작되면서 학내 공간 재조정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학생회관 앞마당, 소운동장, 풍물패 연습공간이 공사현장으로 포함되면서 기존에 이 공간을 이용하던 풍물패, 핸드볼부 등이 연습공간을 잃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총학생회, 동아리연합회, 외대풍물패연합, 도서관 학생위원회, 관리과 직원이 이번주 초 1차 모임을 갖기로 했다. 총학생회장 이승주(사회 · 정치외교 97)군은 "학교측이 공간 이용에 대한 합의 없이 공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면서 공사를 강행해 학내 자치활동이 위협받고 있다"며 "공간 협의 모임에서 건설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도 하나, 우승컵도 하나

지난 6일(금) 서울배움터 모의월드컵 결승전에서 인도어과가 중국어과를 3대 0으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 최우수 선수로는 김학용(동양 · 인도어 94)군이 선정됐으며, 득점왕과 신인상에는 각각 김강훈(서양 · 영어 94), 최우리(서양 · 영어 00)군이 뽑혔다. 한편, 이번 행사를 개최한 축구부는 결승전에 앞서 열린 성대축구부와의 경기에서 3대 2로 승리했다. 대학부

서 울

경영학과, 2년만에 학생회장 선출

경영학과 학생회가 2년만에 학생회장을 선출, 학생회 체계를 복원할 수 있게 됐다. 지난 3일(화) 실시된 학생회장 선거에서 40.7%투표율에 95%의 지지율을 얻어 당선된 박재성(99)군은 △소모임 · 학회 지원 활성화 △온라인 상에 의견수렴 공간 마련 등을 주요한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와 관련, 박군은 "큰 계획을 추진하기보다 학생회 체계를 재정비하는데 힘을 기울이겠다"며 "앞으로 모꼬지나 대동제 등의 행사를 통해 그동안 학생회가 없었던 공백을 메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노동조합, 임금협상 진행

노동조합과 대학당국간의 임금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지난 3일(목) 올해 처음 열린 임금협상자리에서 노동조합은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9.1%+정액 4만 6천원'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대학당국은 4.5%정도만을 인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학생들과 약속한 등록금 인하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4.5% 정도 밖에 인상할 수 없다"는 것이 대학당국의 입장이다. 이에 노조위원장 심재영씨는 "비슷한 수준의 다른 학교 임금수준과 비교했을 때 노조의 임금인상안은 부담하지 않다"며 "학교측이 좀 더 성실한 태도로 임금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2차 임금교섭은 오는 12일(목) 열린다.

통 · 번역학 국제 학술대회 열어

통번역대학원 주최 통 · 번역학 국제학술대회가 오는 10일(화) 이른 9시 30분 국제관 애경홀 및 대학원 소강당에서 열린다.

통 · 번역학 이론과 한국어 통 · 번역의 문제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하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조재영(통번역대학원장), 박시천(불어), 곽중철(통번역연구소장) 교수 등이 참여한다.

그 외 경희대, 제주대, 호남대 등 타 대학 발표자들도 많이 참여, 장장 8시간에 걸친 대토론회가 펼쳐질 전망이다.

사람

진상규명이 될때까지, 우리의 행사는 계속됩니다

제주 53주년 4 · 3 외대 추모전을 개최한 제주항우회 고승환(법 · 법학 97)군을 만나

"우리는 그 동안 4 · 3항쟁을 잘못 알아왔습니다 이는 분명히 재조명되어야 합니다"라고 4 · 3항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고승환(법 · 법학 97)군 .

고군이 속한 제주향우회에서는 지난 2일(월)부터 4일(수)까지 닭은 광장과 대학원 소극장에서 열린 '4 · 3추모전'을 주최했다.

"매년 열어 온 행사였지만, 올해는 함동 위령제, 영화상영 등 예년보다 다양하게 준비해 학생들의 반응이 그 어느 때 보다 좋았다"고 고군은 전한다. 4 · 3항쟁이란 1948년 4월 3일 '미군 철수'와 '남한 단독선거 절대 반대' 등을 외치던 집회에 참석한 평범한 제주도민들을 좌익세력으로 간주하여 무고한 양민까지 학살한 비극을 말한다. 4 · 3항쟁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영혼만이라도 달래주고 싶어서 이 행사에 참여했다는 고군은 4 · 3이 공산당 폭동으로 인식되는 것은 분명한 역사왜곡임을 강조한다.

"4 · 3항쟁은 전 제주도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당시 사람했다고 추정되는 사람들이 최소 3만명에서 최대 8만6000명 (이는 최소로 추정해도 제주도민의 1/8이라고 함)이라는 것은 이를 반증하고 있죠"라며 고군은 제주향우회가 이런 행사를 주관하는 이유를 밝혔다.

"어린 시절 할머니가 들려주신 무서운 옛날이야기가 4 · 3때 할아버지가 직접 겪은 이야기였어요"라고 말하는 고군은 제주도민이 얼마나 4 · 3을 무서워하는지를 밝혔다. 하지만 이를 겪은 사람들은 4 · 3당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고 한다. 당시 너무 큰 충격과 그 후 연좌제 등으로 그 때 일은 금기시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런 4 · 3에 대해 제주도 사람들은 특별법이 제정된 지금도 말하는 것을 꺼린다고 고군은 말했다. 이 특별법 또한 미비한 부분이 많아 진상규명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

4 · 3연구소 등에서 얻은 자료와 인권영화제에서 감옥에 갇혀 상영되지 못한 '나랑쉬 굴'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 자신들도 4 · 3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고군은 "이는 분명히 양민학살이었다"며 "현 젠가는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고 확신했다.

53주기 4 · 3항쟁 맞이 전시회 및 강연회를 통해 모든 이들에게 4 · 3의 진실을 알리고 싶었다고 덧붙이는 그는 다른 학교와는 달리 외대에서는 매년 이런 행사가 열려 외대생들은 4 · 3에 대한 인식이 높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 역사에 이런 왜곡된 부분이 있었음을 알고 그에 대해 정확한 진상규명을 했으면 좋겠다. 또한 아직도 50년전 그 시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4 · 3 항쟁에 대해 제대로 알 때까지 이 행사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현지 기자 yes-brown@hanmail.net

서울배움터

구분 / 요일	학생					
	아침	점심A	점심B	점심C	저녁	면
월 (9일)	불고기백반 (₩1,000)	김치비빔밥 (₩1,400)	소고기버섯덮밥 (₩1,500)	오징어볶음백반 (₩1,400)	오므라이스 (₩1,500)	짜장면 (₩1,000)
화 (10일)	순두부찌개 (₩1,300)	콩나물비빔밥 (₩1,200)	탈모대 (₩1,400)	육개장 (₩1,500)	불고기덮밥 (₩1,500)	스파게티 (₩1,200)
수 (11일)	생선조림백반 (₩1,000)	삼계불고기비빔밥 (₩1,500)	짜장밥 (₩1,200)	닭곰탕 (₩1,400)	사골우거지국밥 (₩1,400)	만만국수 (₩1,200)
목 (12일)	참치김치찌개 (₩1,400)	오징어떡볶음밥 (₩1,500)	위시커틀렛 (₩1,600)	부대찌개 (₩1,500)	콩나물국밥 (₩1,400)	종면 (₩1,000)
금 (13일)	설렁탕 (₩1,500)	닭곰탕 (₩1,600)	돈육볶음덮밥 (₩1,400)	알감이곰탕 (₩1,500)	김치볶음덮밥 (₩1,400)	잔치국수 (₩1,000)

용인배움터

구분 / 요일	어문관			후복관		
	중식1	중식2	분식	볶음밥	덮밥/양식	탕
월 (9일)	카레덮밥 (₩1,500)	두부지짐비빔밥 (₩1,800)	만두국 (₩1,200)	간새우볶음밥 (₩1,500)	돈까스 곰돈가 (₩2,000)	감자탕 (₩1,800)
화 (10일)	아채볶음밥 (₩1,500)	돈육고추장볶음밥 (₩1,800)	비빔쫄면 (₩1,200)	불고기야채볶음밥 (₩1,500)	닭곰탕 (₩2,000)	대구김치찌개 (₩1,800)
수 (11일)	고추장치킨밥 (₩1,500)	사리곰탕 (₩1,800)	만두국수 (₩1,200)	빠삭새우볶음밥 (₩1,500)	안심 스테이크 (₩2,000)	해물탕 (₩1,800)
목 (12일)	탕수육덮밥 (₩1,500)	동태조림 (₩1,800)	칼국수 (₩1,200)	쇠고기볶음밥 (₩1,500)	스테이크 (₩2,000)	육개장 (₩1,800)
금 (13일)	돈육김치덮밥 (₩1,500)	육개장 (₩1,800)	칼국수 (₩1,200)	두부볶음밥 (₩1,500)	오징어볶음덮밥 (₩1,800)	미역국 (₩1,800)

주간일정표

	9일(월)	10일(화)	11일(수)	12일(목)	13일(금)	14일(토)
서울			서양어대 정기총회 노천극장/5시	전체학생 대표자대회 (3206/눈은 6시 30분)		
	수강신청 취소 기간					
용인	수강신청 취소 기간					
		확대운영위원회 (6시/귀빈식당)				

각과 학생회비 수거 어려움 겪는다

내역 공개 투명성, 새내기들 주인의식 선행돼야

"학생회비에 대한 정확한 사용내역도 공개하지 않고 내라고 강요만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는 이모양(서유럽·이태리어 01).

각 과 학생회들이 새학기를 맞아 학생회비를 걷는데 많은 곤란을 겪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과 학생회비 납부율은 50% 남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회비는 개강총회, 모꼬지, 농활 등 각과의 자치적인 행사에 사용되는 돈으로 4년 동안의 회비 12~15만원 정도를 새내기 때 한꺼번에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사용용도 공개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새내기들의 불만, 학생들의 과 활동 참여 저하로 인한 학생회비에 대한 필요성 인식 부족 등으로 잘 걷히지 않고 있다.

학생회비 수거에 대한 새내기들의 가장 큰 불만은 대체로 학생회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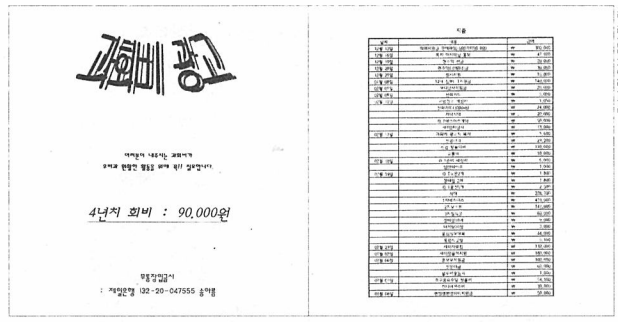
거의 모든 과가 종강총회시 한 학기 결산안을 보고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예산의 투명성을 보장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곧 학생회비의 의의와 앞으로 쓰일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납득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실제로 용인배울터 유고어과의 경우 인터넷 게시판에 일정기간 동안 쓴 돈에 대한 내역을 올려 예산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고학반들의 조언에 따라 과 조교중의 한 사람이 예산안에 대한 감사를 맡고 있다.

이와 관련, 학생회장 공성현(96)군은 "한기 초 통신문 발송을 통해 새내기들뿐 아니라 학부모들도 확실히 이해시켰다"며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설득시키는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고 전한다. 이와 함께 학생회비의 분할 납부 실시와 학교측의 과 학생회 지원도 대안책으로 제시한다.

또 다른·예로 서울배울터의 신문방송학과는 매달 소식지와 대자보를 통해 내역서를 공개하고 있다. 학기 초 이동 학생회를 통한 선전 방법도 새내기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이와 관련 학생회장 정건영(99)군은 "새내기들이 학생회비가 어떻게 쓰이는가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며 "일정기간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둘째로, 새내기들의 학생회 활동 참여 부족과 주인의식의 결핍도 학생회비 수거에 난항으로 나서고 있다.



서울 배울터 | 학생회 게시판에 게재된

용인배울터 태국어과의 한 새내기는 "과 행사는 늘 거기서 거기라는 느낌이다. 참여하지 않을 행사에 쓸 돈을 내는 것이 정말로 아깝다"며 "과방에 가도 어색하기만 하고 적응하기 힘들어 잘 가지 않게 된다"고 말해 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냈다.

이에 각 과 학생회장들은 "과방에 오는 학생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하다고는 하지만 그것 역시 제한적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과 행사시 가장 큰 문제가 '인원동원'이라며, 자발적 행사참여가 필요함도 강조한다.

학생들이 과 학생회 활동의 필요성 인정하고 학생회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학생회비 수거 문제는 예산안 공개, 영수증 첨부 등을 통한 쓰임새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새내기들의 과에 대한 주인의식이 우선돼야 한다. 학생회비를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그 효과가 쓰임의 배 이상이 될 때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라는 생각도 더해져야 할 것이다.

이수경 기자

업무 추진비, 계속되는 투명성 의혹

지난 3월 23일(금) 외대 홈페이지 외대발전을 위한 제언란에 공개된 총장 이하 각 부처(장)들의 업무추진비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문건은 지난 겨울 방학 용인배울터 총학생회가 총장실 점거 당시 얻은 자료로 용인배울터 부총학생회장 황중환(인문·철학 94)군의 명의로 인터넷에 게재됐지만 곧 삭제됐다. 확인 결과 이 자료는 작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 상반기 동안 업무추진비로 요청된 항목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라 실제 집행액 수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한다.

총장 8천여만원, 건설본부장 1700여만원, 용인배울터 부총장 1400여만원 등이 지난 상반기 동안 사용한 것으로 보고됐다. 현재 결산내역이 공개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 내역의 돈을 2배로 가정하고 계산하면, 1년간의 업무추진비 추정액은 4억이 넘는다.

업무추진비가 쓰여지는 곳은 대개 공적인 내용과 사적인 형식이 결합한 곳이다. 이때문에 대부분 사적인 만남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데 이는 오해의 소지가 많게 된다.

예산과장 양영호씨는 "처장 명의로 결재가 내려지기 때문에 제삼자가 보면 적지 않은 액수에 오해를 할 수도 있다. 업무추진비는 사적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부서 차원의 운영비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무추진비가 제대로 쓰여졌는가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 해 예산이 결정되고, 업무추진비 금액이 책정되면 그 이후의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역을 밝히지 않아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규정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구체적 사용용도 마저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업무추진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법으로 자출시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경리과장 윤순복씨는 "재단 명의의 신용카드를 만들어 부서 운영비를 계산하게 하는 방법도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양배울터 학생처를 제외한 나머지 7개 부처 처장들은 월 50만원씩을 지급받고 있다. 이는 '대외업무'로서 총장의 결재를 거쳐야 하는 절차를 간소화해 처장에게 그 역할을 대신하게 했다는 것이 예산과측 이야기이다. 하지만, 정작 '50만원'지급의 이유가 됐던 각 부처별 예산 집행을 보면 일관성이 없다.

지급 기준인 대외업무와 상관없는 기획조정처(장), 총무처(장) 등(각각 4백여만원, 천여 만원(6백여 만원))의 업무추진비 사용이 큰 것이다. 오히려 쓰임이 적은 곳은 연구협력처 등으로 1백여만원을 사용해 업무추진비 예산배정원칙이 일관성이 없음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한 직원은 "업무추진비의 분배 기준은 학교에서 영향력 있는 순서대로 나누어 갖는 듯 하다"고 밝혔다. 게다가, 부처(장)별 운영비는 업무추진비 외에도 학생지도비 명목으로 지난해 기획조정처와 연구협력처가 3백만원, 서울배울터 교무과 5백만원 등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나 부서운영비 명목의 50만원 배당에 대한 의문은 계속 제기된다.

대학부

어디를 누르지? *서울배울터 학생회관 1층 전화기의 다이얼 부분이 누군가에 의해 심하게 훼손되어 있다. 이에 한 외대인이 '지성인임을 잊지 말자'라는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겼다. 진정 우리의 지성은 어디로 간 것일까? 사진부*

알림

제보를 받습니다

외대학보사에서는 학생 여러분이 다루고 싶어하는 학내 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외대학보

사설

학내 언론의 자유

건전한 언론풍토 조성에 힘써야

문민정부에 이은 국민의 정부 수립이래 외형적인 언론의 자유는 분명 괄목하게 확대되어왔다. 최근 한겨레신문과 빅죠로 불리는 조선, 중앙, 동아간의 언론개혁 공방을 지켜보면, 과연 이러한 언론자유의 외형적인 확대가 실질적인 언론자유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는가는 매우 회의적이다. 언론의 자유가 질적으로 향상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각자가 건전한 토론문화의 형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그러한 문화에 체질화되어야 한다. 언론은 정론에 입각한 상호비판과 토론을 통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사회와 역사에 대한 의식을 갖게 함으로써, 건강한 시민사회 건설에 참여할 의욕을 키워주어야 한다. 언론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논의의 초점을 흐리게 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독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잘못된 편견을 갖게 한다면, 이는 그 본래의 사명을 망각하는 것이다. 결국 사회구성원 모두가 질적인 언론자유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출 때라야 민주주의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가 외형적인 민주주의가 확대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상의 민주주의를 달성하기에는 가야할 길이 아직도 멀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 학교내부에도 해당되는 말이다. 흔하들 학교안의 상황이 한국사회의 돌아가는 사정과 유사하다고들 말하는데, 학내에서의 여러 형태의 언론상황이 특히 그러하다.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발생한 학내의 여러 잇슈들을 둘러싼 공개적, 비공개적인 형태의 언론공방을 지켜보면 참으로 답답한 마음 금할 수 없다고 말한다. 대학사회가 일반사회와 다른 것은 지성인들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는 점일텐데, 신중하고 건전한 의견 제시와 설득력있는 상호비판의 언론풍토가 아닙다. 사실무근의 사례들을 동원하여 사실을 왜곡하거나, 상대방을 헐뜯고 비방하는 비생산적인 상처내기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비방과 사실왜곡은 건전한 토론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들의 참여의욕을 꺽게 된다. 이처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풍토에서는 우리 모두가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갖기 어렵게 하고, 서로를 적대시하고 배척하는 부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에서는 생산적인 토론을 통하여 외대발전을 위한 최상의 청사진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심히 걱정된다.

우리 앞에 다가온 가장 중요한 과제는 1년이 채 남지 않는 시점에 관선이사체제로부터 정이사체제로의 원만하고도 발전적인 전환을 달성하는 일이다. 또한 내년에는 총장선거를 통한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해야 한다. 이들 과제의 성공적인 달성 여부에 외대가 원대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것인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빠져버릴 것인가가 결정될 것이다. 향후 외대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이들 과제들과 관련하여 외대구성원 대다수의 지혜와 역량을 끌어 모아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것이 중요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건전한 비판과 생산적인 토론문화의 형성이 필수적이다. 우리는 지금과 같은 비생산적이며 소모적인 상호비방의 언론풍토를 과감하게 바꾸지 않으며 안된다. 이제 외대학보를 비롯한 학내외의 언론공간을 보다 생산적이며 건전한 토론마당으로 가꾸어가야 한다. 우리의 선배들과 동료들이 오랜·고난의 투쟁을 통하여 힘들게 확보한 소중한 언론공간이 서로 물고 뜯는 진흙탕싸움의 장이 되어서는 안된다. 외대의 언론공간 개인적인 작은 이해관계가 아닌 장기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외대발전의 큰 대의를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

2001학년도 제1학기 복수전공 이수신청

2001학년도 제1학기 복수전공 이수신청 접수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 아 래 -

1. 신청기간 : 2001. 4. 9(월) ~ 4. 23(월)
2. 신청장소 : 해당대학 교학과
3. 신청자격 : 가. 7학기(조기졸업 6학기)까지 제1전공에서 취득한 총성적 평점평균이 2.50이상인 자
   나. 제1전공을 8학기(조기졸업 7학기)이내에 이수할 수 있는 자
   다. 복수전공 희망학과의 부전공 과목을 18학점이상 취득한 자
4. 제출서류 : 가. 복수전공 이수신청서(교학과 비치)
   나. 건학년 성적증명서 1통
5. 복수전공이수 허가자 발표 : 2001년 5월중 단과대학별 공고

복수전공 취소기간을 3/4선 이전 소정기간내에 공고한 예정임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01학년도 제1학기 강의시간표(9쪽) 참조

2001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 취소

2001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 취소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 아 래 -

1. 수강신청 취소 기간 및 시간 : 2001. 4. 9(월) ~ 4.13(금)
   매일 09:00 ~ 17:00
2. 수강신청 취소 방법 :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수강신청 취소
   (단, 제수강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은 해당대학 교학과에 제수강신청 취소를 하기바람)
3. 제 한 : 취소하여 12학점 미만이 되어서는 안됨. (4학년 제외)

2001. 4. 10

교 무 처 장

2001학년도 교직과정 이수 신청

1. 신청자격 :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의 학생으로 2학년(3회등록) 재학생 및 2001-1학기 복학생 (4. 5회 등록)
2. 신청기간 : ▶ 2차(본신청) → 2001. 4. 10(화) ~ 4. 17(화) 까지
   ※ 1차 신청자는 해당대학 게시판에 명단을 참고 바람
3. 신청방법
   가. 2학년(3회 등록 재학생) → 인터넷신청 → 학교홈페이지 → 학사서비스 → 학부서비스 → 학사신청조회 → 교직이수신청
   나. 복학생(4. 5회 등록)은 신법대학 교학과 및 용인 교무처에 교직이수 신청서(성적증명서 첨부)제출
4. 선발기준
   교직과정이수 신청 학생수가 아래 소속학과 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순서에 의해 선발한다.
   가. 1학년(2개 학기)까지의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총 평점평균 기준)
   나. 가 항이 동일한 경우 전공성적이 우수한 자

▶ 설치 학과(부) 및 선발인원

대학명	학과 전공	선발인원 서울	선발인원 용인	대학명	학과 전공	선발인원 서울	선발인원 용인
서양어 서유럽학 동유럽학	영어학부	15	12	상경	무역학	9	5
	불어	10	8		경영학	8	
	독일어	10	8	인문	철학		12
	노어	15	15	자연과학	수학		4
	서반아어	30	24		전자물리학		4
동양어 동양학	중국어	30	12		화학		4
	일본어	10	4		환경학		15
	아랍어	15	12	정보산업공과	컴퓨터공학		15

5. 선발공고 : 2001년 5월 중(게시판 및 인터넷)
6. 유의사항
   가. 교직과정 이수를 신청하여 승인 받은 학생만이 교원자격증(중등 2급정교사) 취득자격이 부여 됨.
   나.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를 조기에 선발하고자 교직과정운영규정을 개정하여 3학년 1학기에서 2학년 1학기에 선발하게 되었으니 교직과정 이수신청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

사 범 대 학 장

알 림

학생취업정보센터에서는 효율적인 취업상담 및 취업추천을 위하여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개인별 취업진로카드를 받고 있습니다.

- 아 래 -

1. 대상자
   가. 기 졸업자중 미취업자
   나. 2001년 8월 졸업예정자
   다. 2002년 2월 졸업예정자
2. 카드제출기간 : 수시
3. 취업진로카드 교부 및 접수처 : 학생취업정보센터
   가. 서울캠퍼스 : 학생회관 1층 (전화 961-4436)
   나. 용인캠퍼스 : 학생회관 1층 (전화 031-330-4040)
4. 준비물 : 증명사진 (3㎝×4㎝) 1매

2001. 4. 10

학생취업정보센터 소 장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공모

본 대학교는 작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지정을 받고, 중소기업청 및 경기도의 설립 지원과 대학 대응 투자를 바탕으로 용인 캠퍼스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00평 규모의 독립 전용 건물로 창업보육센터를 건립하여 금년 3월 21일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본 창업보육센터는 15평형 보육실 10개와 이외에도 공동작업실, 회의실, 자료실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데이터센터, 자동 설계/가공 설비, 초고속 인터넷 설비 등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경영, 특허법률, 행정 등 분야의 교내외 전문 기관들과 협약을 맺고 입주업체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예비 창업자 및 우수 벤처기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보육실 규모: 전용면적 15평
2. 입주 기간: 입주 개시일로부터 1년 원칙, 최장 2년 이내
3. 입주 비용: 임대료, 관리비 포함 산당 월 45만원, 동신료 별도
4. 제공 집기: PC, 프린터, 사무집기, FAX, 전화기
5. 신청 서류: 입주 신청서(센터 양식), 대표자 이력서, 사업계획서 각 1부
6. 신청 기간: 2001. 4. 3 - 2001. 4. 17
7. 신청 접수 및 문의처: 한국외국어대학교 창업보육센터
   Tel: 031) 330-4620, Fax: 031) 330-4650
   E-mail: hufsbi@san.hufs.ac.kr

2001. 4. 10

창업보육센터 소 장

2001년 4월 10일 783호 외대학보

학술 단신

'늦봄의 통일사상과 민족토론의 과제' 토론회 열려

89년 문익환목사가 방북을 통해 발표한 4·2 공동성명이 6·15선언을 이끌어내는 모태가 되었다는 것은 광연적 결과였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난 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문익환 목사 방북 12주년 기념 '늦봄의 통일사상과 민족통일의 과제'라는 토론회는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여러 가지 의미로 이번 토론회는 여느 때와 달린 진지하면서도 활발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사)통일맞이 늦봄문익환목사기념사업회에서 주최, 주관하고 한겨레신문, 민화협, 전국연합, 민주기업가회의에서 후원했다.

또한 원래 강만길 상지대 총장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통일문제'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었으나 강총장이 학교일로 참석하지 못함으로써 손장래 민화협 상임의장이 '늦봄의 통일이념의 실현과제'라는 제목으로 대신 발제했다. 그리고 강정구 동국대 교수가 예정대로 '늦봄 통일방북의 민족 통일사적 의의'(4·2공동선언과 6·15공동선언을 중심으로)에 대해 발제했다.

한편 토론에는 정도상(통일맞이 사무처장, 소설가), 정진우(전국목회자협의회 집행위원장), 최규엽(민주노동당 통일위원장), 정대연(전국연합 정책위원장)씨가 참여했다.

(기사제공-Unews)

보도 - 전국대학신문기자 연합 주최 조선일보 반대와 언론개혁을 위한 기자회견

대학언론 이름으로 '조선'을 단죄한다

현직 대학신문기자들이 조선일보를 향해 지성의 칼을 뽑았다.

지난 6일(금)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는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전대기련) 주최 '조선일보 반대와 언론개혁을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현재 전국 126개 대학신문사가 가입, 활동하고 있는 전대기련은 지난해 11월에도 조선일보사옥 앞에서 조선일보 반대 집회를 여는 등 언론개혁에 높은 관심을 보여왔다.

기자회견에 앞선 연대사에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은 "이 땅의 수구언론을 바로잡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국사회의 중요한 시점마다 대학인들의 함이 변화의 원동력이 되었듯 언론개혁에도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양대 편집국장 백종락(정치외교 99)군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고윤정 전대기련의장(부산대 편집국장)을 비롯, 경기대, 금오공대, 목포대, 상주대, 서울 신학대, 한경대, 한신대, 한양대(가나다 순) 등 9개 대학신문사 편집장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고윤정 전대기련 의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주와 통일의 새시대가 열리고 있지만 여전히 반공논리를 앞세우며 같은 민족을 '적'이라 몰아세우고 냉전적 가치를 되살려 그 위에 기생하려는 반통일 세력이 있다. 이런 수구세력의 대표적 집단이 바로 '조선일보'다"며 "이에 전대기련은 '조선일보 평생구독거부 선언운동'과 시민들과 함께하는 전국적 거리집회를 통해 조선일보의 죄악을 고발할 것이며 동아·중앙일보와 같은 보수적 여론의 신문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지난 6일(금)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은 조선일보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언론개혁운동에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4·5월중 대시민·학생 선전전 진행 △학생, 교수 등 취재원들을 대상으로 조선일보 평생구독거부 서명 받기 △조선일보 허위, 왜곡보도 사례 전시회 개최 △대학언론인 공동연대 지면선전 등의 사업계획을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나온 "각 지역별 특성을 살린 조선일보 반대운동이 있는가?"는 월간 '말' 정지환 기자의 질문에 고윤정 전대기련 의장은 "지역단체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창조적인 방식의 활동을 계속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약 한 시간여동안 진행된 기자회견은 가까운 미래사회를 책임질 대학생들이 기성언론에 대한 반성을 요구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언론계 종사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하지만 당초 전국대학방송국연합(전방련), 전국영자지기자연합(전영기련) 등 다른 대학언론단체와 함께 진행하려던 기자회견이 전대기련만 참여한 가운데 열려 아쉬움을 남겼다.

이에 대해 전대기련 연대사업국의 한 관계자는, "다른 단체의 사업논의 시기가 전대기련보다 약간 늦어 이번에는 함께 진행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광처질 언론개혁운동은 충분히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학술부

명언의 참뜻

○… 연대 출신 김우중씨. 그가 한참 잘 나가던 시절 그의 모교에 '김우중관'을 설립했다. 하지만 연세대에서는 김우중관 명칭변경을 위한 마라톤 대회가 열린다는데. 이 행사를 두고 많은 학생들은 김우중씨가 남긴 명언을 다시금 이해할 수 있었다는데 "세계는(뭘)곳은 넓고, 할 일(명칭변경)은 많다"

〈환동〉

○… 민중대회에 대한 보도내용이 본지와 메이저 언론사간에 큰 차이가 있었다고 한다. 메이저 언론사에서는 한총련 학생들이 연세대에 모여 폭력시위를 벌였다며 시람들이 화염병 던지는 모습을 방송한 것이다. 이에 크로니클자 조사를 해보니 정작 한총련 학생들은 중앙대에 모였다고… 그럼 연세대에도 있었고 중앙대에도 있었다면 이건 무슨 뜻인가… 그건 바로 한총련 학생들은 흥길동이라는 뜻이다.

〈훈〉

○… 얼마전 철거 반대 시위를 하면서 화염병을 던진 사람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앞으로 화염병 시위자에 대한 공직채용 제한과 시위 전력자 명단공개, 취업불이익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집이 없어진다고, 먹고 살지 못해 죽어야한다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외칠 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더니 화염병을 던졌다고 나라와 언론이 움직인다. 이에 우리 크로니클자 왈 "화염병 화력이 세긴 세구만…"

〈홍〉

○…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 등 전국 8개 대학이 등록금 인상분 중 일부를 학생들에게 환불한다고 한다. 이에 반해 아직도 등록금 협상이 벌어지고 있는 우리학교에서는 "환불은 절대 불가능하다. 복지기금으로 쓰겠다"고 했다는데…

이에 순진한 우리 크로니클자 왈 "그럼 환불해 주는 대학 복지기금은 나중에 따로 걷나보자"

〈kang〉

복지기금 고지는 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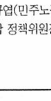
식을 줄 모르는 진보 학술 연구에의 의지

맑스 원전 강독팀 팀원 이성혁(국문과 박사과정 수료, 외대 강사)씨 인터뷰

외대 대학원 학술 연구 연합

맑스 엥겔스 저작선집 강독

팀장: 이혜진
H/P: 016-837-9117



(맑스 엥겔스 저작선집) 세미나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2시 30분 외학연 사무실이며 현재 6명정도의 인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주 3월24일 (토) 에 첫시간에며 (맑스 엥겔스 저작선집)1권 p1~ p81 까지 읽고 오시면 됩니다.

※ 외학연 연락처 Tel. 561-4639

-맑스 엥겔스 저작선집 강독팀은 어떤 내용을 다루며 세미나의 의의는 무엇인가

1학기 동안 맑스 엥겔스 저작선집 1~4권까지 볼 계획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 나온 맑스의 텍스트 중 가장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선정했다.

세미나는 그 주에 정해진 텍스트 분량을 읽고 발제문을 통해 내용을 정리한 다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짚은 후,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맑스의 사상은 자본주의 모순이 낳은 해방사상이며 그 모순이 사라지지 않는 한 계속 문제의식과 대안을 제시하는 사상이다.

물론 현실 사회주의는 맑스 사상이 억압적 체제 유지 이데올로기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그것은 이데올로기화하기 위해 관료들에 의해 체계화된 사상이었다.

이전에는 소련이나 동구에서 교과서적으로 체계화된 맑스주의의 학습이 연구자들에게 중요했지만, 이젠 자신의 현재 삶에 비추어 맑스를 창조적으로 읽는 것이 중요하다.

-학술운동의 전반적 약화에 대해 진단한다면?

약화의 원인으로 사회주의 붕괴가 시대적 흐름에 끼친 영향, 군사 독재 정권 시대엔 선명했던 민주-반민주의 구도가 점차 흐려졌던 것 등을 들 수 있을것이다.

또한 이전 학술운동은 정통 맑스주의라는 공통의 이념적 기반 위에서 분야별 연구를 했기 때문에 통합될 수 있는 측면이 강했지만 현재엔 다양한 이론적 기반을 가지고 분야별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약화되었다.

학술운동이 활발해지기 위해선 서로의 이해를 심화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운동이 진행되고 새로운 대안 모색을 위한 운동적 성격의 연구활동이 계속되어야 한다. 물론 진보적 학술운동 단체는 그 구성이 자본주의적 조직과는 다른 공동체적 조직이 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학회 협의회 구성을 추진해도 좋을 것 같다. 물론 학회는 독립성을 가지고 자기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해야겠지만 심포지움 개최라던가 강연회, 발표회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서로의 다른 입장과 전문적 시각을 소통시키는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학술운동단체를 위한 제언

다양한 관심사와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를 올바르게 이끌어내지 못하면 도리어 상이한 성격들끼리 부딪치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치닫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에너지만 소모되고 활동의 방향성도 잡히지 않게 된다. 차이를 억압하지 않고 조직 활동에 생산적인 힘으로 이끌어내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게 쉽지 않다.

그렇다고 부딪힘을 피하기 위해 그냥 흐르는 대로 서로 간섭하지 않고 놔두는 태도도 경계해야한다.

류지훈 기자 kickbutt@orgio.net

외대 대학원 학술연구연합(이하 외학연)은 1989년 '민족-민주학문사상연구회'라는 이름의 외대 대학원 내 젊은 연구자들의 모임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12년이 흐르면서 조직 유지가 힘든 상황도 있었고 성격도 변화했지만, 진보적 학술연구를 지향한다는 이념은 계속 유지해왔다.

하지만 외대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학회 학술운동이 약화된 지금 외학연에선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대안을 모색 중인지 알아보기 위해 5개의 주제 연구팀 중 두 개 팀의 관계자들을 만나보았다.

고전읽기 팀장 박남용씨 인터뷰

현재 미네르바의 편집장을 맡고 있고 한 주에 1, 2권씩의 책을 꼭 읽는다는 팀장 박남용씨는 "취업준비 때문인지 영어공부엔 관심이 있어도 이런 모임에 대한 관심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는 "독서를 통한 다양한 간접경험을 해야 아집이나 고집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현대작가에 대해 공부하는 것의 의의를 묻자, 그는 "우리는 '문학'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시대찾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정 시대에 특정 작가가 주목을 받는 이유에 대해 생각하며 사회 전반으로 시야를 확장할 수 있다.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전 학생이라는 입장에서 사회적 안목을 키울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며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인 학우들의 실태를 꼬집는다.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힘든 점을 묻자 "대학원생이나 학부생 모두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만난다. 나이차가 많은 상황에서 절충적 관계를 이루는 게 쉽지만은 않다"며 웃는다. 마지막으로 세미나 팀 참여를 망설이고 있는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물었다. 그는 열정있는 사람들이 더 있으면 좋겠다며 "이런 세미나 팀에 참여해서 직접 작가의 작품세계를 접해보면 기존의 통념과는 다른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 있다. 심도있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도움을 얻을 곳이 없다며 주변 환경 탓만을 하지 말고 주위를 둘러보길 바란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고 전했다.

류지훈 기자 kickbutt@orgio.net

공 고

발전캠페인본부에서는 우리 대학과 지역사회 주민의 상호발전을 위하여 지난 해 11월 지역상가주민 초청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후 대학과 지역 상호발전에 뜻을 함께 한 지역상가들이 학교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이에 발전본부에서는 21세기외대발전위원회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외대사랑후원업소를 선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 래

외대사랑후원업소 명단(가나다순)

상 호	대 표	전 화 번 호
금 강 산	신상균	968-0303
남 강 가 든	박향연	968-0759
비스마르크	이혜숙	965-0211
우 미 정	박봉석	963-0491
일 송	이창훈	968-7520
청 학	송대현	965-7302
탑 호 프	김순자	964-8331

외대발전캠페인본부장

파격적인 가격으로
고해상 디지털프린팅 해 드립니다.

출력센타에 직접 찾아가실
필요없이 PC에서 인터넷으로
바로 주문하실 수 있으며,
칼라프린팅 1장당 880원
흑백프린팅 1장당 7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프린팅해 드립니다.
superimage.co.kr에 방문하셔서
새로운 출력서비스를 경험하십시요.

갖고계신 중요한 자료를
스캐닝하여 CD로 제작해 드립니다!

영구 보존판으로 만드십시요.

여러분의 중요한 자료나 리포트,논문들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스캐닝해서 언제든지
검색하실 수 있도록
CD로 제작하여
드립니다.

www.superimage.co.kr
(주)슈퍼이미지 빔출력사업팀 794-7573 스캐닝사업팀 793-8663

제1회 전국 영어 말하기 대회

■ 예선 : 2001년 5월 7일 (월)
한국외국어대학교 대강당
본선 : 2001년 5월 22일 (화) 충남대학교 대강당
■ 주최 : 국제청소년연합
한국외국어대학교 IYF 동아리
후원 : 굿모닝증권, 영국대사관, 중앙일보사, 시사영어사, (주)뉴그리드테크놀로지
■ 시상 : IYF회장상, 충남대 총장상, 중앙일보 사장상, 시사영어 사장상, 굿모닝증권 사장상, (주)뉴그리드테크놀로지 사장상
■ 상세한 내용 : www.IYF.or.kr

주제 : 1. 21세기의 국제 사회를 전망하고 국제 사회의 주역으로서 한국의 대학인이 나아갈 방향은?
2. 대립과 반목에서 교류와 연합으로 - 청소년 문제의 포괄적인 접근을 위하여
3. 지금은 범람하는 지식과 정보를 지성과 신앙으로 제어할 때 인터넷을 통한 범죄의 증가 등 문제점과 그 해결
4. 21세기의 과학기술 만능주의의 허상과 극복 방안에 대하여
5. 기타 청소년 문제에 대한 자유 주제

보도 - 한총련 대의원대회 보고 기자회견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한 자세로 살겠습니다"

기자회견은 최승환 한총련 의장 외 10명의 중앙상임위원회가 참가하여 발인 한국학생운동의 전망에 관한 토론 결과, 대의원대회의 성사와 9기 한총련 투쟁방향에 대해 보고를 하는 자리가 되었다.

김주훈 한총련 대변인의 사회로 시작된 기자회견은 △대의원대회 성사보고 △9기 한총련 투쟁방향 △4천만 국민들께 드리는 글 남독 △김대중 대통령께 드리는 글 남독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연덕왕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위원장(공운대 총학생회장)은 대의원대회 성사보고에서 "성사 자체가 한총련 이적규정이 더 이상 설득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과정"이었다며 "이번 의장선거는 4천만 민중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학생운동의 단결과 용대한 비상을 예고하는 장이자 혁신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장이다"고 평가했다.

가장 주목을 끄는 '9기 한총련 향후 투쟁방향'에 대해 박천영 충청총련 의장(충남대 총학생회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답방 한총련 환영위원회'를 결성하고 조국통일의 청사진을 제시할 2차 남북정상회담을 한총련이 최선두에 서서 성사시켜 낼 것"과 "이 땅에 다시 대결과 전쟁의 먹구름을 몰고 올 미국의 NMD, TMD 구축음모를 저지하고 미국을 이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기 위한 투쟁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동자 투쟁에 대해선 "이들의 투쟁은 곧 나라 경제를 살리는 투쟁이며 한총련이 이에 적극 연대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용헌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전남대 총학생회장)은 "김정일 위원장 환영위원회가 건설된 것 자체가 커다란 투쟁의 성과이며 학교마다 '신이북바로알기' 선전과 함께 환영위원회 활동을 활성화시킬 것"이라며 "사상과 정견의 차이를 넘어 단결하기 위해 한총련 재기입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낼 것"이라고 향후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한총련은 지난 4월 3일부터 18일까지를 반미투쟁기간으로 선포하는 등 NMD, TMD 저지 등 반미자주화 투쟁에 더욱 총력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승환 의장은 "진지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겸손함으로 4천만 국민과 함께 하며 더욱 패기 있게 거듭날 것"이라며 "4천만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투쟁을 위해 국민들이 점서적으로 꺼려하는 과격한 투쟁방법을 지양하고 대안을 앞세운 참신한 투쟁방법을 진행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이는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많은 한계를 가졌던 것을 인정하고 전면적인 혁신을 일구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최 의장은 이를 실현하는 방도로 "과·반학생회를 보다 강화하는 등 기층으로부터 운동대중화를 이루어나갈 것"이라며 조직사업의 방향을 큰 틀에서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6·15 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세력이라면 정부·여야정당, 우익단체와도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 밝힌 최승환 의장은 "정권에 대해 반대·퇴진운동을 벌이던 대결구도가 아닌 6·15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최대한 함께 하겠다"고 말해 정부와의 대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암시했다. 최승환 의장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한총련 의장으로서 대통령과 만나 학생운동의 현안과 조국의 미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싶다"며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총련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보다 폭넓고 대중적인 투쟁을 벌려나갈 것을 선포했고 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공동기자단

류지훈 기자

보도 - 한총련 대의원대회 전체보도 해설

이적규정 철회 · 통일 운동 합법화 의지 보여

이번 대의원대회의 가장 큰 화두는 '통일단결'과 '운동대중화'였다. 이는 4년만에 처음으로 치뤄졌던 한총련 정기중앙위원회와 더불어 90년대 후반의 학생운동 침체기를 벗어나 학생운동의 신화를 복원하기 위한 것이다. 97년 이적단체 규정 이후 침체기를 걸어왔던 학생운동은 이번 대의원대회를 통해 학생운동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합법화를 통한 운동대중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출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의장선거가 경선으로 치러지면서 9기 한총련 대의원대회는 학생운동의 일대혁신과 대중화에 대한 기층의 폭넓은 논의와 토론이 진행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이번 한총련 의장선거는 총 870명의 대의원 중 617명이 투표한 가운데 최승환(부산대 총학생회장) 후보 338표, 이용헌(한총련 임시의장·전남대 총학생회장) 후보 274표, 무효 5표로 최승환 후보가 당선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선이 분열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지만 이러한 목소리를 일소하듯 한총련의 일대혁신을 위한 대중적인 논의와 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한총련 의장 후보였던 이용헌(전남대 총학생회장)군은 9기 한총련 조국통일위원장으로 추대되기도 해 한총련의 '통일단결'의 의지를 대중적으로 선언했다.

연합뉴스

2박 3일간의 치열한 토론의 장이었던 대의원대회에서 가장 쟁점화된 부분은 단연 '한총련 강령 수정'과 '87기 한총련에 대한 평가, '혁신과 대중화'였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한총련은 통일에 대한 강령인 "조국의 영구분단을 막아내고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 아래 연방제로 조국을 통일한다"는 기존안을 "조국의 영구분단을 막아내고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 하에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일강령으로 틀어쥐고 가까운 앞날에 조국을 통일한다"는 문구로 수정했다. 이는 그 동안 한총련 탄압의 근거가 됐던 '연방제 방안' 등의 문구를 완화하는 가운데 지난 남과 북의 두 정상이 만나 명실공히 남북의 합의가 되는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대체함으로써 한총련 운동의 정당성과 대중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단국대에서 제출한 범민련에 대한 평가에 대해 '흠노선 수정동의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난항을 겪기도 했으나, 충분한 토론을 통해 결정을 중앙상임위에 위임하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한총련이 범민련 분열의 한 요인이었던 점이나 조직의 운영에서 드러났던 비민주성 등 지난 운동 평가 부문에서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최승환 의장은 "정권은 온갖 수단을 통해 한총련을 고립, 압살시키려 했다. 한총련은 고난의 시기를 이겨낸 승리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진정한 승리자란, 우리가 걸어온 길에서 혁신을 도출하고 과감한 실천의지도 내세워야 한다"며 평가에 기반을 둔 '더 큰 혁신'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한총련은 당면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에 대해 환영사업을 벌이고 NMD, TMD 등의 정책으로 전쟁위기를 부추기고 통일을 가로막는 미국과 반통일 수구보수 세력에 대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지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겸손함으로 4천만 국민과 함께 하며 더욱 패기있는 모습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힌 최승환 의장의 말처럼 2박 3일간 대의원들은 전례 없는 열정을 보여주었다. 한국학생운동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가받는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학생운동의 혁신과 대중화에 대한 고민이 수면으로 떠올랐다. 상층에만 머무르던 의견이 대중 속에서 공유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이는 지난 시기 정권의 이데올로기적 탄압으로 인해 국민과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한계를 가졌던 것을 인지하고 전면적인 혁신을 통해 이를 타파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출로 보인다.

대의원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만큼 한총련은 학생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민주집중제를 통한 대의체계를 구현하고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 이지혜(서강대 부총학생회장)양의 말이 어느 때보다 깊이 와 닿는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공동기자단

행사 이모저모

① 비록 선거에서 패배자한 당선자 최승환 공을 축하해 주는 이용헌 (전남대 총학생회장)군

② 개막제 공연 중인 '최장세'의 모습

③ 공연을 보며 즐거워하는 세내기

④ 합법화되어 제약의 한계에 다다른 대의원들이 적잖게 힘들어 하는 모습이다.

기자의 눈

그들이 학교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지난 3일(화)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우리학교 김재현(상경·무역 89)군의 첫 재판이 열렸다. 지난해 민주노동당 학생그룹 외대지부의 대표로서 활동했던 김재현군은 2월 28일 연행된 후 지금까지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다. 검찰이 밝힌 김재현군의 구속 사유는 몇 해 전에 열렸던 노동자 집회에서 정부를 '비방'하는 신문, 소위 '이적 표현물'을 판매했다는 것이다.

얼마전 열렸던 민중대회에서도 우리 학교 학생 5명이 연행된 사건이 있었다. 그들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 소속 학생들이었다. '좌경폭력세력'이라는 딱지가 붙은 그들이지만 '신종 화염병'은 커녕 스스로를 보호할 어떤 도구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 학생들은 꼬박 48시간을 유치장 안에서 보낸 후 불구속으로 풀려났다.

이러한 정부의 강경한 태도는 무엇에 기인한 것일까. 갈수록 민중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목소리는 커져가고 있지만 정부는 그 목소리에 답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탄압으로 침묵을 강요한다. 국가보안법이라는 만능무기는 어떤 진보단체의 입에라도 재갈을 물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걸까.

타조는 천적에게 쫓길 때 모래 속에 머리를 묻고 시야를 가린 다음 위험이 없는 척 스스로를 기만한다고 전해진다. 정부는 속으로 타조와 같은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국가보안법의 명목 하에 '이적'의 꼬리표를 붙인 다음 탄압으로 일관하여 입을 다물게 하면 우리 사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법정에서 김재현군은 "나는 노동자집회에 참여해 그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고무했다. 노동자들의 투쟁을 고무, 찬양한 것이 '이적' 행위라면 정부가 말하는 '적'은 노동자, 민중인가"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말에 대한 반론의 근거를 국가보안법에서 찾을 것이다. 명백한 '반정부' 행위도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명분으로 '반국가' 범죄로 매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현 국가보안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국가보안법에 의존하여 체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시도는 그만둘 때가 되지 않았을까. 김재현군은 최후진술에서 "이 체제가 낳은 온갖 불평등과 빈곤에 항의하는 노동자, 민중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신념을 밝혔다. 이러한 사람의 출현은 그가 마지막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류지훈 기자 kickbutt@orgio.net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안내

저희 학생생활상담연구소는 학생들의 대학생활에 적응을 돕고, 생활하면서 당면하게 되는 여러 문제들을 원만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전문적인 상담과 교육프로그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

1. 심리검사
- 성격검사(MMPI, MBTI, 성격진단검사, 자아개념검사 등): 자신의 성격 특성과 유형, 자신의 장단점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잠재능력을 지니고 있는 전공과 직업분야를 알 수 있습니다.
- 직업흥미검사: 개인이 선호하는 직업적 흥미분야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사출 투사 검사(로샤, TAT, 그림검사 등): 자신의 좀 더 깊이 있는 내면을 알아볼 수 있는 검사로써 전문가의 판단 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상담
정서, 성격, 진로, 대인관계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상담전문가가 개별적으로 상담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3. 집단상담
여러 사람과 어울려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1)자신을 표현하고, (2)자신의 언행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경험하며 (3)타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4. 유학 및 기타 자료이용 : 유학 취업 정신건강에 관련된 자료들을 수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시간 : 월 금 10:00 17:00 (학생회관 2층 / T : 02)961 4164(이문), 031)330-4141(왕산)
※ 적성검사는 개인별 심리검사는 수시로 만들 수 있으며,
적성검사와 집단 프로그램은 일람표를 미리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 본 연구소의 이용은 무료이며, 이용 내용은 전적으로 비밀을 보장해 드립니다.

성문제 상담실 안내

성년 11월 신설된 성희롱규정 적대 실현로 등 해방 및 지위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2001년 3월 학생생활상담연구소 내에 "성문제 상담실"이 신설되었습니다.

성문제 상담실은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 및 교직원들에 대해 즉각적인 대책마련과 처리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교제나 성문제로 인한 고민은 효과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상담전문가에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종 비디오 시청」과 「알기 쉬운 대학생의 성교육」,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교육」등의 프로그램은 성에 대한 올바른 의식 함양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PC상담실도 개설하여 내방이 어려운 시간에 고민을 e-mail로 적어보낼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수하지고 혼자서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열린 마음과 적극적인 자세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바랍니다. 본 연구소를 이용하신 분들의 신상내용 및 상담내용은 철저한 비밀 보장을 해드립니다.

※ 이용시간 : 월~금 10:00~17:00
학생회관 2층 학생생활상담연구소 내
e-mail: 이문: secs@hufs.ac.kr
용인: sccy@hufs.ac.kr

신입생 인성검사 결과지 배부 안내

신입생 여러분!
성격검사 결과지를 받아가세요.
본인이 **직접** 내담하여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상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4, 5월 집단상담 안내

이문캠퍼스

◆ 친로 의식결정 프로그램 내용
자신의 가치관, 성격, 흥미 여가활동 등을 검토, 자기에게 적합한 진로 결정
지도: 김이열(상담부장)
일시: 5월 3일(목)부터 5월 24일(목) 매주 목요일 15:00 17:00 총 16회 모집
◆ 4월 직업검사 일정(80분간)
4월 12일 목요일 15:00 4월 30일 월요일 15:00
◆ 새로 보는 성과 사랑
내 용: 성 의식 자기점검, 성 관련 VTR 시청 및 토론.
지 도: 오혜영(성문제 상담원)
일 시: 1차: 5월 2일(수) 15:00~17:00 2차: 5월 29일(화) 15:00~17:00

용인캠퍼스

◆ 심리극(Psychdrama)
내 용: 내 마음을 상연하고 당신의 마음을 함께 나눕니다.
지 도: 조은정(전문상담원)
일 정: 4월 4일~6월 30일, 매주 수 15:30부터 90분간, 총 8회
◆ 자기표현훈련
내 용: 나의 생각과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능력이 키워집니다.
지 도: 신경진(상담부장)
일 정: 4월 9일~5월 14일, 매주 월 15:30부터 60분간, 총 5회
◆ 취업면접 실습
지 도: 신경진(상담부장)
1차: 1회 4월 12일(목) 2회 4월 19일(목) 14:30부터 60분간
2차: 1회 5월 9일(수) 2회 4월 16일(수) 15:30부터 60분간
3차: 1회 5월 25일(금) 2회 6월 1일(금) 15:30부터 60분간
◆ 새로 보는 성과 사랑
내 용: 성 의식 자기점검, 성 관련 VTR 시청 및 토론
지 도: 성찬일(성문제 상담원)
일 시: 1차: 5월 3일(목) 14:30~16:30
2차: 5월 28일(월) 15:30 17:30

※ 각 프로그램 참여는 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 이용시간: 월 금 10:00 ~ 17:00
장 소 : 학생회관 2층 학생생활상담연구소

학 생 생 활 상 담 연 구 소

혀마리 꽃향기

쪽의 언어를 찾아서

사사모사〈15〉

영희는 사사모사로 자기 일에 간섭해 나서는 옥이가 몹시 얄미웠다.

사사모사→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로 맞디드는 모든 일마다는 뜻. 사사건건과 비슷한 말이다.

만나보기 - 농장팀의 김홍기씨

"나는 외대에서 나무만 심으며 살았어"

개강 후 하얀 눈의 흔적을 볼 수 있었던 용인배움터 교정은 어느새 푸른색으로 조금씩 채워지고 있다. 따뜻한 햇살 아래 야외수업도 진행하고, 친구들과 함께 둘러앉아 이야기를 하는 풍경은 교정을 더욱 활기차게 한다. 가만히 둘러보면 배움터 곳곳은 작은 쉼터와 공원을 연상케 할 정도로 자연과 잘 어우러져 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무를 돌보는 농장팀 아저씨들 덕택이다. 내년이면 우리학교 나무를 돌본지 20년째가 된다는 김홍기(53)아저씨. 학교에 있는 모든 나무는 아저씨의 손에 의해 심고 가꾸어졌다 해도 전혀 지나친 말이 아니다.

"학교가 처음 세워졌을 땐 뭐 이런게 있었나? 그냥 여긴 다 논, 밭이었고 나무는 산에야 많았지"라고 그때를 회상하며 웃음 짓는다.

86~7만평의 배움터 교정의 나무와 풀들을 모두 관리하시기에 하루일과가 늘 모자란다고 한다. "늦가을부터 이른봄까지는 전지를 해줘야 돼, 전지를 하지 않으면 나무가 제 멋대로 자라거든"이라는 아저씨. 나무를 심고, 물과 거름을 주고, 소독과 풀을 깎는 일들… 나무 한그루 한그루마다 여러번 손길이 가야만 한다고 덧붙인다.

용인배움터에는 단풍나무, 느티나무, 향나무, 메타스카, 가에스카, 은행나무, 무궁화나무 등 종류를 다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나무가 있다. 또한 지난달 26일부터 학교 정문입구부터 도서관까지 중앙도로변에 벚나무를 새로 심는 중이다. 봄에는 벚꽃의 하얀 물결이, 가을에는 노란 은행잎들로 넘실거릴 길, 상상만해도 즐겁다.

"나무가 잘 자라나는 것을 늘 볼 때마다 뿌듯하지"라고 말하는 아저씨의 집에는 공간이 여유가 없어 정작 나무 한 그루 없다며 웃으신다.

학교가 지어진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우리학교를 대표할 만한 나무가 없다. 아저씨는 "이제 막 자리는 단계라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고 말한다.

"주위가 모두 산불 위험을 가지고 있다. 불 한번 나면 지금까지 가꾸어 온 것이 무용지물이다"고 말하는 아저씨는 요즘같이 건조한 때에는 신경을 많이 쓰게 된다고 한다. "학생들 고기 구워먹고, 담배 피고 꽁초 버리는 것 조심해야 돼"라고 당부를 잊지 않으신다.

"내가 열심히 일해 만들어놓은 공간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며 즐거워할 때 지금까지 일한 보람을 찾는다"고 전하는 아저씨. 아저씨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빛나보였다.

윤홍은 기자 happyend21@hanmail.net

성문제 상담실 소개

성문제, 신문고를 두드려라

성폭력 학칙 제정 후 개설, 성 문제 전반 상담

우리 사회는 예전부터 성에 대한 이야기는 금기시 해왔다. 학문과 진리를 자유롭게 접하고 추구하는 가장 진보적인 공간인 대학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지금까지 '혼자' 고민해오던 성을 이제 '함께' 이야기하려는 움직임이 학내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는 얼마 전 양배움터에 '성문제 상담실'이 문을 연 것. 성문제 상담실은 지난 해 11월에 제정된 성폭력학칙제정에 의거한 것이기에 그 의의가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서울대를 비롯한 몇몇의 학교만이 성폭력 학칙을 제정했을 뿐 아니라 상담실 설치는 거의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며 상담실을 소개하는 상담원 정선영씨는 상담실 설치가 학내 구성원 개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반가운 일이라고 한다.

또한 상담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갖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학내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성희롱, 성차별 등에 대해 늘 그러려니, 그냥 조심하고, 꺾었어도 드러내면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해 오던 학내 구성원들에게 '성'에 대해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성문제 상담실은 성폭력 학칙제정에 명시된 대로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 및 교직원들에 대해 즉각적인 대책마련과 처리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성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시 법적 자문과 피해자를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중요한 곳"이라는 정씨는 이런 역할은 하게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인다.

성문제 상담실은 말 그대로 성에 관련한 전반적인 모든 문제를 상담한다. "단지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당한 사람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교재 등의 어려운 점도 함께 이야기해요"라는 정씨는 커다란 문제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고민되는 성에 관련한 것들을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 남자들도 많이 와서 상담하겠죠?"라며 웃으며 말한다. "사실 남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해요. 하지만 이곳을 여권신장의 하나로만 보지 않았으면 해요" 남녀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의사소통을 가능하게끔 도와주는 것이 그가 그리고 있는 상담실의 모습이다.

"첫 문을 연 만큼 많은 욕심이 든다"는 그 상담실의 분위기는 분주하고 활기차 보였다.

5월에는 '새로 보는 성과 사랑'이란 프로그램을 열 예정이다. 스스로에게 성가치관을 묻고 대답하는 '성의식 자기 점검'과 대학의 성과 사랑에 대한 비디오들을 함께 보고 토론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기존에 알고 있던 성에 대한 왜곡된 점을 함께 이야기하며 학내 건전한 성담론을 야기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취지이다. 이외에도 앞으로 성문화 축제, 집단 데이트 성교육, 강연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하는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에 성 문제 상담실은 고민이 많다. 물론 바꾸어 생각하면 성 문제를 금기시 하는 지금의 모습이 있기에 성문제 상담실은 더욱 더 필요한 존재일 것이다.

상담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직접 와서 상담하는 것이 좋겠지만 방문이 어렵거나 꺼려지는 학생들을 위해 이메일 상담도 마련되어 있다.(서울배움터: sxs@hufs.ac.kr/ 용인 배움터: sxy@hufs.ac.kr)

정씨는 "열린 마음과 적극적인 자세만 갖고 오면 된다"며 함께 울고 웃으며 이야기하고 싶다고 한다.

얼마전 대학생의 99%가 성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하는 지금에도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못한 채 많은 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함께 이야기 해 문제를 해결했던 그 옛날의 신문고, 상담실이 그 신문고의 자리에 서 앞으로 많은 외대인과 함께 하기를 기대해본다.

김현지 기자 yes-brown@hanmail.net

서울배움터
◆ 새로 보는 성과 사랑
지 도: 오혜영(성문제 상담원)
일 시: 1차- 5월 2일(수) 15:00-17:00
2차- 5월 29일(화) 15:00-17:00

용인배움터
◆ 새로 보는 성과 사랑
지 도: 정선영(성문제 상담원)
일 시: 1차- 5월 3일(목) 14:30-16:30
2차- 5월 28일(월) 15:30-17:30

생활시평

책을 사지 않는 불순한 이유

얼마전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교재구입에 인색한 우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수업을 듣는 학생에게 교재는 당연한 것일텐데, 교재를 선뜻 구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강의실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손에는 제대로 된 교재가 들려있지 않았다. 불법 복제는 물론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 뿐만 아니라 강의실에는 책 없는 사람도 많음을 발견한다. 1~2학년은 그런대로 교재를 사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책을 사지 않는다. 조금 이상한 구석이 있다. 대학에서의 공부가 이런거구나를 이미 깨닫는 최고학번들이 왜 교재를 사지 않는것일까?

한 선배에게 물었다.

"선배는 왜 교재 안 사요?"

"난 교재 없이도 공부 할 수 있어. 교재 사봤자 몇 번 보냐, 큰 도움도 안 되고…" 선배는 말한다.

몇 번 보지 않는다는 말에는 공감했다. 사실 강의 때문에 산 교재는 강의가 끝난 다음에는 큰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대부분 집에 먼지와 함께 쌓여있다. 그러나 강의에 도움이 되는 것이 존재 목적인 교재가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나를 고민하게 만들었다.

물론 책을 사지 않는, 교육을 받는 사람의 입장으로의 불성실함은 먼저 지적되어야 함이 틀림이 없다. 그런데 왜 교재를 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일까?

사람들은 그 책이 살 만한 가치가 있을 때 산다. 살 만한 가치가 있어서 만족을 충족시킨다면 아까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이다. 한번 나의 한 학기 수업을 되새겨본다.

수업시간에 대체로 조금씩 참고를 하지만 대부분 선생님이 필기해주신 것들이 시험에 나온다. 요즘은 광가와 발표 위주로 수업이 이루어지지만 아직도 대부분 시험은 필기해준 것에서 몇 가지 설명하라거나 논하라는 식의 문제가 나온다. 달달 외우면 된다. 그리고 노트 필기는 잘 된 친구의 것을 복사하면 되었다. 그러고보니 수업시간 한두번 들고 다닌 것 이외는 크게 교재를 사용한 일이 없었다. 강의교재를 사지 않고도 소위 버틸 수 있다는 생각은 여기서 출발했다.

꼬리에 꼬리를 문 문제점은 또한 인문학이 무너지고 토익, 토플, 컴퓨터 등의 취업필수만을 생각하는 학생들의 지적풍토, 자신들의 소질과 적성 관심분야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교육풍토와도 관련이 갔다.

교재는 강의와 학습자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우리의 강의는 이런 매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교재는 외면당하고 있다. 왠지 모르게 마음 한켠이 씁쓸하다.

윤홍은 기자 happyend21@hanmail.net

문화소식

서점

나카가미 겐지/ 문학동네/ 8,500원

고목탄

"나카가미와 더불어 일본 근대문학은 끝났다"

일본의 대표적 문학평론가인 가라타니 고진은 평한다. 서문에서 그는 40대 중반에 병으로 세상을 뜬 나카가미 겐지의 문학세계에 대한 상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코지키(古事記)'로 불리는 일본 신화의 원형을 발견할 수 있는 이 책은 태평양을 면한 세상과 단절된 듯한 작은 어촌을 무대로 뒤얽힌 피의 계보 속에서 허덕이는 스물여섯살 청년의 삶을 그렸다.

이야기는 책 앞에 실린 가계도를 수시로 펼쳐참해야 흐름을 놓치지 않을 만큼 복잡하지만 부박하고 토속적인 전개는 이 책의 매력이다.

유홍준/ 역사비평사/ 16,000

화인열전

답사문화의 새장을 열며 '문화권력자' 반열에 오른 유홍준 교수(영남대)가 이번에는 우리 미술사에 큰 족적을 남긴 조선시대 화가들을 기행하는 역작을 내놓았다.

지난 1990년 여름호부터 2000년 여름호까지 장장 10년간 계간 '역사비평'에 연재하던 '조선시대 화가들의 삶과 예술'을 엮은 '화인열전'이 그것이다.

반 고흐나 피카소 같은 서양화가보다 겸재 정선이나 단원 김홍도 같은 우리 화가들의 일생에 관한 지식이 더 적은 우리의 무심한 현실을 반성하게 한다. 유홍준의 글솜씨 구사하는 화인들의 삶과 예술을 기행해 보자.

인터넷

http://www.womenlink.or.kr

1987년 남녀평등한 민주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여성민우회의 홈페이지.

이 사이트는 기본적인 민우회의 활동을 돕고 민우탈력 등을 통해 활동전반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만들었다.

새소식과 지역이슈는 민우회 지부활동을 연결해주며 민우회 활동 참여를 더욱 활발하게 한다.

온라인 상담은 이 사이트의 가장 큰 특징. 가족, 성 상담실, 여성노동 상담실, 여성취업 상담실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상담해주고 있다.

자료실은 가족, 노동, 환경, 미디어, 성 등 여성과 관련한 여러 자료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

공연

지구의 날 31주년 기념, 16회 환경음악회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열리는 환경음악회는 94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16회를 맞이하는 국내 최고의 권위있는 음악회로 자리잡았다. 이번 음악회에는 금난새와 유로시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송원호(피아노)등이 출연하며 유쾌하고 특별한 음악나들이가 될 것이다. 한편, 음악회는 환경사랑 기부음악회로 좌석구매가 곧 환경사랑 실천을 위한 기부활동으로 연결된다.

현지구적 차원의 환경 위협이 날로 심각해지는 지금, 환경에 대한 높아진 시민 의식을 환경 음악회를 통해 한 차원 끌어올리는 직접적 실천의 장이 될 것이다.

일시: 4월 15일(일) 늦은 3시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입장권: R석 5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문의 및 예매: 02)335-6937

더 나은 나로 나가다

만나보기 - '첫번째 즐거운 역사 만들기 대회'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상을 받은 서울 남성초등학교 6학년 2반

우리들이 다시 쓴 정신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어볼래요?

윤홍은 기자

▶ 최종순(남성초등학교) 선생님

"역사 속에 나오는 문제를 자기의 일로 받아들였으면…"

상을 받았을 때의 소감은 어땠는가

우리 반 아이들의 땀과 노력을 인정해주는 것이기에 무엇보다 반갑고 기뻤다.

지금까지 교과서를 벗어난 수업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었다.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수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는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큐를 찍게 된 계기와 과정을 말해달라

매학기 프로젝트에 따라 수업을 진행한다. 프로젝트는 보통 사회와 국어를 중심으로 다른 수업은 재미있게 까워서 준비하는데 이번엔 '평화와 인권'이라는 주제아래 '위안부 할머니'들을 소재로 잡았다. 모든 것을 기록한다는 원칙아래 자기의 능력에 맞게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했다.

비디오조, 카메라조, 기록조는 그날 그날의 활동을 모두 기록한다. 수요집회에 다녀와서 할머니들께 편지를 쓰기도 하고, 공동 시 창작, 할머니의 현재, 과거, 미래를 담은 벽화만들기, 십자수 등 많은 것들을 덧붙인다. 또한 말지 일종진 기자에게 사진강의, 전대협 간사에게는 위안부할머니들에 대한 강의도 들었다.

프로젝트 수업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실 교과서에 불만이 많다. 현장에 있는 교사와 학생들을 고려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흥미있게 내용을 보고 관심을 갖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이 수업에 있어 아이들에게 가장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사회에 있는 문제, 역사 속에 나오는 문제를 자기의 일로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램이었다.

일본교과서 왜곡과 관련하여 시끄러운 요즘,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은

사실 우리 교과서에도 일본위안부 문제는 2~3줄 정도밖에 나와있지 않다. 우리도 제대로 가르치고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야기 할 수 있겠는가. 비판을 스스로 하지 않는 우리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교사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요즘 냉장고 앞에 붙여놓고 늘 생각하는 말이 있다. '교사는 정치가이자 혁명가이고 또 예술가이다'라는 말.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너무 과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곱씹을수록 그 의미가 새롭다. 교사는 과감하게 낡은 것을 깨고 항상 새로움의 선두에 서서 인간의 내면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인 것 같다.

윤홍은 기자 happyend21@hanmail.net

즐겁게 수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역사는 직접 우리가 체험해 보지 않은 먼 과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따분하게 느껴지는 건 아닐까? 우리가 만일 역사의 실제 상황에 살았다면 어땠을까?

전국역사교과서모임과 (주)즐거운 학교(www.njoyschool.net)가 만든 첫 번째 즐거운 역사 만들기 대회.

어떤 이들은 교과서가 아닌 캠코더를 들고 역사 속으로 들어가 뉴스를 찍고, 연극, 영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 어떤 이들은 신문기자가 되어 신문제호도 근사하게 만들고, 시대상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사설도 휘날리고, 섹션별로 기사도 구성했다.

'정신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어볼래?'(보도취재물 · 12분)를 만들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상을 받은 서울 남성초등학교 6학년 2반 최종순 선생님(45 · 남성초등학교)과 최승호 학생(13 · 사당중학교)을 만나보았다. 편집자주

"할머니들을 찍은 우리만 상을 받게되어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다큐작품이 상을 받았을 때의 소감은?

이렇게 커다란 상을 받게 될 줄은 몰랐다. 상을 받아 기쁘기는 하지만 할머니들을 찍은 우리는 이렇게 상을 받고, 정작 할머니들은 아직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상을 받은 마음이 편하지는 않다.

수요시위도 참석했었다고 하는데, 어땠었는가

처음 일본대사관 앞에 갔을 때는 일본사람들이 나와서 총을 쏠까봐 무서웠다. 하지만 뒤로 갈수록 우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힘이 없으신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대신할 수 있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카메라에 담았는데, 찍기 전과 찍고 난 후 무엇이 달라졌는가

할머니들을 만나기 전에는 위안부라는 것이 간호사인 줄 알았다. 찍으면서 할머니들이 너무 안됐다는 생각을 했고, 만약 내가 할머니라면 위안부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을 것 같다. 그래서 할머니들이 용감하다는 생각을 했다.

다큐를 포기할 뻔한 고비가 있었다고 하던데

처음에는 재미있었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렵고 힘들었다. 내년에 중학교를 가는데 공부에서 뒤쳐지는 것 같아 여러 친구들이 불안해했다. 그래서 중간에 긴급회의가 열렸다. 지금까지 한 것이 아깝기도 하고, 제자로서 선생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 죄송스럽기도 했다. 그 때 회의에서 '끝까지 하자'는 결정이 내려진 후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었다.

윤홍은 기자

▶ 최승호(남성초등학교 졸업)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말한다면

할머니들이 살고 계시는 나눔의 집에 갔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할머니들의 생활을 옆에서 지켜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좋았다. 한 할머니가 고향이 그리워 돌아왔다며 우시는데, 여자아이들이 많이 울었다.

다큐를 찍으며 얻은 것은 무엇인가

함께 있는 시간이 많다보니 다른 학년 때보다 친구들과 더욱 많이 친해질 수 있었다. 그리고 할머니들을 알게 된 점이다.

할머니들은 아이들을 무척 좋아하시지만 수요시위 때에는 잘 웃지 않으신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오면 할머니들이 웃으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기뻤다.

선생님에게 하고 싶은 말은

처음엔 힘들고 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 짜증도 나고 솔직히 선생님을 원망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선생님께 정말 감사한다.

윤홍은 기자 happyend21@hanmail.net

미리가보기 - 제 3회 여성 영화제

이제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리라

'프로레슬링' 선수를 한번 그려보자. 어떤 그림을 그릴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자'를 전제에 두고 그림을 그렸을 것이다. 이렇게 반쯤은 가려진 성과 사회에 대한 생각들, 영화를 보는 동안만이라도 '여성의 눈'을 크게 떠보자.

97년부터 격년으로 열리는 서울 여성영화제가 4월 15일(일)부터 22일(일)까지 7일 동안 동숭아트센터 동숭홀과 하이퍼텍나다에서 개최된다.

여성영화인들의 시각으로 삶의 다양한 측면을 다룬 영화를 상영하는 서울여성영화제는 뉴커런츠, 한국영화 회고전, 아시아 단편 경선 등 다양한 주제를 담은 7개 부문 67편의 영화상영 프로그램과 크고 작은 학술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뉴커런츠'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김소영 교수의 '거류'를 개막작으로 하여 최근 2~3년간 화제가 되었던 여성영화들 20여편이 상영되며, '한국영화 회고전'은 공처가 삼대, 남자와 기생 등 1960년대 성을 둘러싼 코미디 영화 4편으로 구성되었다.

서울여성영화제는 비경쟁 국제영화제이면서 아시아 단편경선은 경쟁부문으로 도입했다. 1회 33편의 출품작으로 시작한 영화제, 3회째인 올해 그 출품작이 160편으로 늘어난 것은 여성영화제의 대외적 발전을 반증한다. 출품작 중 17편(국내 12편, 국외 5편)의 작품이 상영되며 수상작은 폐막작으로 발표된다.

또한, '아시아에서 영화를 만든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마련된 국제학술프로그램은 인도 사회문화 연구소 니란자나 등이 패널리스트로 참석해 토론을 벌인다. 이는 아시아적 관점, 여성적 관점에서 영상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이다.

영화제 중 아이를 둔 엄마를 위해 매일 1회 특별 상영(오전 11시~오후 1시)을 마련했다. 이 시간 영화제 측은 놀이방을 운영해 그 동안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문화생활을 반납했던 여성관객도 영화제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 하지만 여성과 문화에 대한 시선은 그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여성과 문화 모두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지금, 서울여성영화제가 특히 아시아와 한국에서 여성과 문화의 지위를 더불어 상승시킬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관람료: 4000원 (심야상영 10000원)
문 의: 541-3917~9 (www.wffis.or.kr)

김현지 기자 yes-brown@hanmail.net

서울여성영화제 상영일정표

■ 동숭아트센터 동숭홀 ★상영 후 감독과의 대화 있습니다. ※ 다음 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월)	화(화)	수(수)	목(목)	금(금)	토(토)	일(일)	월(월)
1회 11:00	(행복)/(오래된 부채기운)	(2) 쿠션트 쿠션트로의 여행)	(핸스월드 파크)	(사랑(통지서))	(이리의 이중생활)	(부정한 관계)	(세퍼JOE)	(노래하는 여자, 노래하지 않는 여자)
2회 1:30	(이들의 시간)	(총격없는 여행)	(방랑자)	(여토부인)	(이들의 시간)	(금지된 속삭임)	(행복)/(오래된 부채 기운)	(이리의 이중생활)
3회 4:00	7시 - 개막식 개막작 (거류)	(이사회는 사람들과 나) ★	(남자의 기생)	(세퍼JOE) ★	(공처가 삼대)	(이사회는 사람들과 나)	(이리의 이중생활)	(아프우 박사) (이해리스의 커밍아웃)
4회 6:30		(미도리) ★	(김정화에) ★	(여시반 노들)/ (조 ID) /(시브로시)	(부정한 관계)	(거류) ★	(핸스월드 파크)	
5회 9:20		(갈매이트)	(SA)에서 7시까지의 폐회전 ★	(여시반 노들)/ (조 ID)	(노래하는 여자, 노래하지 않는 여자)	(폐막식)	(리브/주스)	(상실의 시대)
Event		8시 여성운동가의 밤	7시 아테스 비콘다 포럼	7시 여성영화인의 밤	7시 영화 포럼	7시 한국영화 포럼	8시 우리들의 밤	
심야 상영	20일(금) - 상영작 : (상실의 시대)/ (노래하는 여자, 노래하지 않는 여자)/ (이해리스의 커밍아웃)/ (아프우 박사) 21일(토) - 상영작 : (갈매이트)/ (여시반 노들)/ (2000)/ (시브로시)/ (2001)/(주스)							

■ 하이퍼텍 나다

	인(월)	화(화)	수(수)	목(목)	금(금)	토(토)	일(일)
1회 11:00	(한지의 달)(30)/ (재회 이야기)	(일지 산부)	국제포럼 "아시아에서 여성영화를 만든다는 것"	(유럽시대의 없다시발들의 연합)/(세월고 뒤로 자리)	(일이나의 비밀)/(김)	(총격없는 여행)	(미도리)
2회 1:30	(사랑(통지서))	(복잡(과)는 없다)/(발발의 연합)/(세월고 뒤로 자리)		(아시아 단편경선 1 ★	(한지의 달)(30)/ (재회 이야기)	(일이에린 학국)	(태양의 말들)
3회 4:00	(일이나)	(여시반 가에)/ (김해 속에 있다)/ (이제와 시간)		(아시아 단편경선 2 ★	(아시아 단편경선 3 ★	(김) 쿠션트 쿠션트로의 여행)	(세상끝에서)/ (김)
4회 6:30	(누수: 여성의 한이)/ (역사수업) ★	(거미와 검즈)		(세상끝에서)/ (SM은 간의 힘뿌)	(일이나)	(태양의 말들)	(금지된 속삭임)
5회 9:20	(아시아 단편경선 1	(아시아 단편경선 2	(아시아 단편경선 3	(여시반 가에)/ (김해 속에 있다)/ (이제와 시간)	(누수: 여성의 한이)/ (역사수업)	(SA)에서 7시까지의 폐회전	
아시아 단편경선	(아시아 단편경선 1 - 상영작 : (그림하이)/ (리틀하이)/ (모델)/ (가타 스페트1 1)/ (이리지)/ (타리 이야기) (아시아 단편경선 2 - 상영작 : (행속의 무한가)/ (경현의 이사)/ (나 좀 삶아줘)/ (미주심의 비극)/ (이드리안)/ (아시아 단편경선 3 - 상영작 : (달이 지고 비가 옵니다)/ (일 수 있다)/ (상사)/ (씨이곤 드라이)/ (Onshuiki-kaiko 이름의 비디오테이프)/ (동동)						

여러언어를 배우고 있는 외대. 언어를 배울때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필수이다. 이에 본보에서는 매호마다 각과 언어를 선정해 먹거리, 볼거리 등 각 나라의 문화를 체험해보는 장을 마련했다. 편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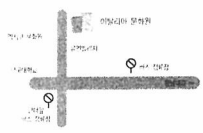
가볼만한 곳

이탈리아 문화원

이탈리아 문화원이 하고 있는 일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면 첫째 유학상담과 정보제공, 둘째 이탈리아 강좌,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의 기획이다. 또한 문화원 내의 자료실은 매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5시 사이에만 이용가능하다. 자료실에는 각종 잡지와 신문, 1500여권의 문학, 언어, 예술, 건축 관련 이탈리아어 서적, 비디오 자료, 음반자료 등이 보관되어 있으며 신문만 확실히 증명할 수 있다면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탈리아 문화원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태리 요리를 한국에 전파하는 일을 담당하기 위해, 이탈리아 요리강좌를 열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1-398
전화: 02-796-0634
홈페이지: http://www.italcult.or.kr
이용시간: (도서관)수요일 오후 2~5시
(유학상담)목요일 오전 9~12시
교통편: 지하철 1호선 한남역



먹거리

파라파스타

이제는 흔해져버린 피자, 스파게티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이태리 식당. 하지만, 우리나라에 알려진 이태리 음식들은 거의 대부분 일본을 거쳐 들어와 정통 이태리요리 보다는 일본식에 가깝다. 그럼 진짜 이태리 음식은 이태리에 가야만 맛 볼 수 있는 것일까?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파라파스타는 대리석 건물에서부터 이태리가 느껴진다. 손님들에게 정통 이태리 요리를 선사하기 위해 거의 대부분의 재료를 수입하며, 주방장도 이태리 사람이다.

카프레제, 혼합 그리팅 등 antipasti(전식)은 3~4천원선에 맛볼 수 있다. 또 17세기경 이탈리아의 공부들이 음식만이라도 하얀 색으로 먹어보자는 데에서 비롯된 알카 카르보나라 등 다양한 primi(파스타)는 6천~9천원으로 만날 수 있다.

또한, 해피아워인 1시 30분부터 3시 사이에 파스타를 주문하면, 이탈리아산 카푸치노 또는 에스프레소가 무료로 제공된다.

읽을거리

장미의 이름

움베르토 에코 / 열린책들 / 8,500

중세 수도원 생활에 대한 가장 훌륭한 입문서로 알려져 있는 '장미의 이름'.

이 소설은 영국의 수도사 윌리엄이 이탈리아의 한 수도원에서 겪는 연쇄 살인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기호학자 움베르토 에코의 추리적 기법이 책의 읽는 재미를 더한다.

독자는 이 책을 통해 중세 베네딕트 수도원의 자세한 묘사와 그 당시의 풍습, 역사적인 사회상, 중세 사상을 엿볼 수 있다.

'장미의 이름'은 상업적 성공뿐만 아니라 메디치 상, 스트레가 상 등의 권위 있는 문학상을 수상해 그 작품성도 인정받았다. 한편, 우리 나라에서는 이를 원작으로 한 '장미의 이름으로'라는 영화가 소개되기도 했다.

볼거리

인생은 아름다워

감독:로베르토 베니니
출연:로베르토 베니니, 니콜레타 브라치

1930년대 파시즘이 맹위를 떨치던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한 '인생은 아름다워'는 유태인 귀도가 겪는 '유태인 학살'을 유머 있게 그렸다.

이탈리아 특유의 낙천적인 기질과 풍부한 유머를 마음껏 발휘하며 영화만이 전해줄 수 있는 행복감을 관객들에게 선사하는 이 작품은 아름다운 울림이 오래도록 남는 사람스런 우화이다.

인생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이 영화는 1999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이자 남자 주인공인 로베르토 베니니가 최우수 남우 주연상과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여행담

이태리를 여행한 이기철(이태리어과 강사)씨를 만나

"이태리는 나라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박물관입니다"라고 말하는 이기철(이태리어과 강사)씨.

그는 94년부터 작년까지 베네치아 국립대학에서 유학하며 이태리 전역을 여행했다고 한다.

이태리는 도시국가로 발전해 지방색이 매우 강하다고 한다. "이태리의 대표적인 음식 파스타도 지방마다 다른 소스를 사용해 독특한 맛을 가진다고 한다"고 전하는 그는 이태리에서의 지방여행을 권한다.

평소에도 가족들과 식사하는 것을 즐긴다는 교황의 나라 이태리 사람들은 "부활절과 크리스마스에는 가족들과 각각 풀롬바과 빠네또네를 먹으며 축제를 즐긴다"고 한다.

그는 가끔 "이태리인들의 자유분방하고 언제나 웃는 모습이 그립다"고 밝혔다.

김현지 기자 yes-brown@hanmail.net

글을 받습니다
자격 : 외대인(교수, 학생, 직원) 모두 / 주제 : 제한 없음 / 매수 : 200자 원고지 4~5매 / 마감 :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
투고방법 : 학생기자실(학생회관 2층) 방문 또는 컴퓨터통신(하·나우 OEDAE, e-maill oedaepress@hanmail.net)
외대학보를 읽고 공감하는 부분이나 바라는 점을 애정어린 눈으로 비판해 주십시오. maincc.hufs.ac.kr/~weekly

흡산은 HUFS(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an의 준말입니다

외대학보를 읽고

동아리 문제보도, 여론화 계기형성

동아리 문제를 심도있게 다룸으로서 학우들이 학생회 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모르고 있었던 동아리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기뻤다.

백정흠 〈정보산업공·산업공학 00, 손말사랑회 회장〉

서울·용인 배움터 합의 필요성 느껴

총학생회일과 관련해 서울과 용인 배움터의 많은 합의가 필요함을 느꼈다.

김종균〈정보산업공·컴공 01〉

세심한 편집 뒤따라야

전체적인 기사 내용이나 짜임새는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 1학년인 내가 보기에 다소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도 많이 있었다. 예를 들어 인터뷰 기사 같은 경우 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가 부족한 것 같아 잘 와 닿지 않았다.

김세옥〈서양·독일어 01〉

학생들과 밀접한 내용 다뤘으면

학생들 이야기를 많이 다루지 않는 것 같아 흥미면에서는 좀 떨어진다. 학내사안이나 학생들에 대한 기사들을 많이 다루었으면 좋겠다.

안지은〈서양·불어 01〉

'이사람' 연락처 실었으면

'이사람'이라는 칼럼을 관심이 가지고 읽어보았다. 지난 학보의 김소영감독 같은 경우, 소개할 때 영화와 관련된 홈페이지 주소나 연락처를 함께 실어주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들었다.

윤혜정〈서유럽·불어 00〉

계속되는 학내 소음문제 해결 위해 학생 인식, 행동 개선 뒤따라야

1.소음문제

작년도 우리학교에서는 소음문제와 관련해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문제환기가 있었다. 그와 더불어 이번 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소음견제와 관리를 하는 첫 시기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이번 학기 개강 3-4주를 맞으며 우려스러운 모습과 소음문제가 다시 재발할 것 같은 징조를 곳곳에서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올 학기초에 발생한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2. 학생회와 풍물패

이번 학기 들어서 이번 주까지(오늘 3.24) 노천극장에서는 벌써 9번 이상의 크고 작은 행사가 벌어졌다. 학군단의 행사를 제외하면, 본인이 알기로 학생들 차원에서 벌어진 행사는 총학생회 2번, 풍물패 1번이다.

총학생회는 작년 선거시 공약으로 노천 매월 2회내 사용준수와 풍제를 꼭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학생들에 대한 약속은 무참히 무시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행사가 길지 않아서 다행이었지만, 소음은 있었다. 마음 같아선, 마이크 소리를 조금 더 줄였으면 하는 아쉬움도 든다.

무대에서 불과 2, 30미터 앞사람들에게만 들릴 정도로만 소리조절을 할수도 있을텐데 도서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구호와 소리를 전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란 의구심이 들었다.

3. 일반학생들의 교내 음주가무

이번 학기초 발생하는 소음은 이것만이 아니다. 바로 교내 이곳저곳에서 산발적으로 들리는 음주가무의 소리들이다.

본교학칙 규정을 보면 "학생들은 학내에서 음주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물론 학교를 다니며 잔디밭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술 한잔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 만은, 이렇게 이해되고 넘어갈 수 있는 경우는 바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었을 때 추억과 낭만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며칠동안 도서관 밖에서 들려오는 잔디밭에서의 음주가무 소리 및 괴성소리들 노래소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학생들의 의식수준에 아쉬움이 느껴지는 부분이다.

4. 정리해야 할것

이상에서 살펴본 것 같이, 날씨가 점점 더 따뜻해짐에 따라 학내 소음문제가 다시 발생할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더군다나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장담했던 총학생회마저 약속은 오간데 없고, 단발마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 어떤 학생활동을 하든 개인의 자유이며 향유할 수 있는 즐거움일 것이다. 그러나 그 뒤에 따르는 책임이 있고, 각자는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교내집회를 가지는 학생들은 자신들의 집회소리(구호, 마이크 음향, 노랫소리)등이 도서관에까지 들리지 않도록 해주었으면 한다. 도서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전혀 필요없는 것일뿐더러, 소음일 뿐이다.

그리고 교내 음주소란행위와 관련해서는 학생차원, 또는 학교차원에서의 적절한 계몽이 있으면 좋겠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은 학생들의 인식개선과 행동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올해가 소음문제 해결의 실마리와 그 구체적 윤곽을 잡는 기점으로, 또 문제해결 정착의 해가 되기를 바란다.

장재웅 〈서양·불어 95〉

조규철 총장님 보십시오

올해도 어김없이 서울 캠퍼스에도 따뜻한 3월의 봄이 찾아왔습니다.

3년전 제가 처음 대학이라는 곳에 들어와서 겪었던 일들이 아직도 제 머리에 생생히 기억합니다. 98년 그 뜨겁던 외대발전을 위한 투쟁은 새내기였던 저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1주일에 3, 4일은 노천에 학우들과 직원분들, 교수님들로 가득차서 외대의 발전을 말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학교에는 총장님이 두분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구비리재단 세력이 내세운 총장이었고, 또 다른 한 분은 외대의 발전을 염원한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바로 조규철 총장님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흘렀습니다. 도서관 앞의 제2건학선언문에 채 이끼가 끼기도 전에 총장님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외대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2000년 새로운 세기의 3월의 봄은 총장님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98년 저를 감동시킨 그 투쟁으로 구비리재단의 세력들을 쫓아내고 외대의 발전을 고민하신 총장님께서 구악세력의 학내진입을 방조하셨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싸웠던 성과들이 물거품이 되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총장님께서는 왜 구악세력의 학내진입을 용인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000년 9.8%에 이은 2001년 7%의 등록금이 인상되었습니다. 7%의 등록금 인상분이 학생들에게 유익하게 사용된다면 전 이렇게 흥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관건립을 위한 등록금 인상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더욱이 본관의 설계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30%도 안된다는 것을 들었을 때 도대체 본관을 왜 우리들의 부모님이 피땀흘려 버신 돈으로 지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98년 조규철 총장님을 생각하며, 지금의 총장님은 과연 누구신지 묻고 싶습니다. 학생들을 무시하며, 대화할 생각조차 없는 분이라면 더 이상 총장님은 총장님이 아니십니다.

98년 그 뜨겁던 외대발전의 투쟁의 기억을 한번 되새겨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보형 〈사회·신문방송 98〉

사

"올해 41세인 정유순씨는 말기 암 환자로 2개월여 남은 꺼져가는 생명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녀가 죽으면 16세, 11세인 그녀의 아이들은 고아가 되겠지요. 이들을 향한 구원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아일랜드에서 온 우리학교 영어과 쉴리 콘웨이 교수가 거리로 나섰습니다. 낯선 이국땅 한국에서 호스피스 활동을 하며 만난 세 모자의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아직은 서투른 한국말이지만 열심히 외쳐봅니다.

-지난 7일(토) 종각역 '죽어가는 모자기정의 한 어머니를 위한 희망의 캠페인' 장소에서-

모자르다. 더 주라. 어 그래.

-허무개그

백진 돼지부

주제: 조규철 총장의 2000년 1학기 업무추진비가 8000여 만원이라는데…

도대체 무슨 활동을 했길래 8천여만원이 드는가 묻고싶다.

-?

총장도 등록금 내라! 한 학기에 천여만원 정도

-예산과

그 돈으로 본관 짓자.

-건설업자

와! 활동 무지 열심히 하나보다 총장 파이팅!

-총장아들

총장이 올해가 임기 마지막이라고 하던데 그돈 다 제대로 계산해서 퇴직금에서 갚아라!

-연금생활자

10년 공부해서 사법시험 합격해서 연수원 수석해서 로펌(law firm) 가도 8천만원 못 받는다.

난 고시 대신 교수 될란다.

-법대고시생

그돈 갖구 어떻게 한 학기를? 좀더 줘라!

-다른학교 총장

국회의원 선거에 드는 돈을 이야기하는건가?

-국회의원

그돈.. 모두다, 정말로 우리학교를, 우리학생들을 위해서 썼을까? 의심스럽다..

-그냥 학생

내 한학기 등록금이 200만원이라치면 4년간 8학기 1600만원.

한 학기동안 쓴돈이 내 8학기 등록금의 몇배?

-등록금 대출받은 학생

무슨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면 집 한채 값이 나오나 그래?

-부동산 업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합니다

"더 후하게 대접해야지"

우리나라는 옛부터 집안에 손님이 찾아오면
그 '정성스런 대접' 은 어두 만할 수 없었습니다
쌀독속에 묻어놨던 천지난 과일부터
오랫동안 담궜던 장가지 술…
여름 내내 말렸던 나물가지들…
우리 어머님들은 요즘 대접
걱정이 하나 느셨습니다
"우리 나라 대통령이 이북에서
대접을 그렇게 잘 받았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 오면
더 후하게 대접해야 할텐데"
우리 어머님들의 마음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합니다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